

신영세자 신앙적응 교육 자료집

자료집을 펴내며

“신영세자들에게 더 큰 관심과 배려를”

냉담교우 숫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도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냥 밀어붙이는 식의 대안활용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한 방안으로 우선 신자들의 재교육을 강화해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본당 단체의 활성화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갓 세례를 받은 신자들을 위한 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부모를 비롯해서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친척, 동네 사람들까지 그 아기에 대해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습니다.

그리하여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통하여 역시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영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례 전인 예비자 시기에는 그토록 살갑게 맞이하다가도, 세례를 받고나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영세자는 나름대로의 벅찬 희망과 다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마음을 먹지만, 주위의 무관심 내지는 냉냉함이 순식간에 그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지 1~3년 이내에 냉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실 그동안 배운 교리와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실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신영세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음마 수준에 있는 신영세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토록 신앙에 맞들이며 행복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신영세자 신앙적응 교육’ 이란 책자를 펴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9.11.20

-선교 사목국장 전동기 신부-

신영세자 신앙적응 교육 자료집

목차

I. 신영세자 신앙적응 교육(신비교육)	
1. 단계별 교육.....	6
2. 신영세자 신앙적응 교육의 필요성.....	7
II. 교리교육에 대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8
III. 신영세자 신앙적응을 위한 지침.....	9
IV. 신비교육.....	10
V. 새로 입교한 평신도의 재교육.....	11
VI. 보도 자료	
1. 신 영세자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13
2. 서울 포이동본당 새 신자 재교육(노숙자에 무료급식봉사).....	13
3. 예비신자 복.....	14
4. 냉담교우 찾기 노력 재교육 강화로 해결해야.....	15
5. 서울 낙성대 본당 신영세자 재교육 프로그램.....	16

VII. 신영세자 · 신자 재교육 참고 도서.....	17
VIII. 신자 재교육에 대해서	
1. 신자 재교육(상).....	19
2. 신자 재교육(하).....	22
3. 구교우들의 재교육 문제.....	25
4. 평신도 지도자의 교육.....	26
5.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서공부 가장 선호.....	28
6. 특강미사로 신자 재교육 효과 높여.....	29
IX. 구체적인 실천 사례	
1. 망미 성당	
A. 2006년도 신영세자 후반기 교육.....	31
B. 신영세자 교육 ‘하느님을 찾아서’	49
2. 활천 성당.....	99
3. 수원 교구 커리큘럼.....	333

I. 신영세자 신앙적응 교육(신비교육)

1. 단계별 교육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요구하는 단계식 예비신자 교육에 따른 예식서에서는 신앙인이 되는 길이라는 측면에서 작성되어 있다.

‘단계들은 사람들을 탐구와 성숙의 시기로 인도해 가며 이 시기를 통하여 준비되어 성령의 감도에 순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절차(어른입교예식서 4-7)’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절차의 1단계는 복음 선포와 전 예비신자 기간이라 하며 이 단계는 초보적 회심에 마음을 두고 신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때이고, 2 단계는 예비기간으로 신앙이 자라고 예비신자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으로 보다 깊은 성사 준비를 하게 되는 때이고, 3 단계는 정화와 조명의 시기로 영신적 준비를 마치고 성사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로 입교하는 때이다. 그리고 세례 후에는 신비교육의 기간으로 이어져 복음의 묵상, 영성체, 애덕의 실천 등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며 앞으로 진보해 나가기 위한 시기이다. 따라서 입교식부터 세례식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줄곧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단 계	인 도 자 와 교 회 의 관 심 과 배 려
입교식부터 세례식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리반을 항상 함께 다니면 가장 좋으나, 사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처음 몇 번만이라도 함께 교리반에 참석한다. 2. 주일미사와 교리반 참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3. 세례 전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며 성실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4. 대부모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세례식 이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분간은 주일미사나 기도생활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며, 부족할 경우 함께 하면서 친절히 설명해 주고 서적도 추천한다. 2. 본당 단체 가운데 하나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신앙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관심을 보여야 하고, 그 후로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2. 신영세자 신앙적응 교육의 필요성 -이재을 신부-

본당에서 신자들의 재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의 신자들이 세례 후에 즉시로, 아니면 어떤 이는 신자 생활 중에 신앙생활을 쉰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세례 받은 이들이나 기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즉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야 하는 당면한 과제가 있다.

재교육은 신자들이 쉬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지속토록 하기 위함이다.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적인 것들이 있다.

그것은 재교육을 위한 교재, 교육 과정, 교육 단계, 교육 담당자 등이다. 교재는 신자들을 위한 지침서이고, 교육 과정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며, 교육 단계는 그들의 수준을 정도에 맞춰서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며, 교육 담당자들은 그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인도자들이다.

새 세례 신자들은, 대부분의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세례 준비를 위해서 상당 기간 교리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가 바라는 교리 지식이나 정기적인 신앙생활로 바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교리 교육 때에 입교에 필요한 교리나 지식, 신심, 신앙생활 등을 배우고 익히지만 대체로 교리 지식이나 신앙생활의 배경이 전무한 상태에서 교리 교육에 참가하기 때문에 교리 후에도 교회 생활이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뿌리내렸다고 말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교리의 내용이나 복음의 메시지의 무지상태에서 대부분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들이 배운 교리 지식과 신앙의 가치를 일상생활에다 바로 접목하는 데에 미숙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 재교육 없이 미사 전례나 성사 생활을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쉬게 하는 원인이 된다. 세례 이후 재교육 없이 그들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에 스스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너무나 쉽게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신앙생활을 쉰다.

II. 교리교육에 대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169 조 (교리교육)

- 1항: 세례받은 새 신자들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 **후속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789조; 그리스도교교육선언, 2항; 어른 입교 예식서, 37-40항;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2.27항 참조).
- 2항: **사목구 주임사제**는 예비신자 교리나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리교육을 할 수 있는 대로 **직접 담당하여야** 한다(교회법 제528조 1항.제773조;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5항 2;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9-32항 참조).

제 170 조 (신자교육의 의무)

- 1항: 사제는 신자들에게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교리교육을 받도록 한다(교회법 제773.789.794조 참조).
- 2항: 부모들은 **사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교리교육을 잘 받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26조 2항.제774조 2항.제1136조;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3.24항 참조).

제 172 조 (교리교사)

- 1항: 교구 직권자는 **교리교사들이 맡은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로 그들을 준비시켜야 한다(교회법 제780조;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34항 참조).
- 2항 **사목구 주임사제**는 **교리교사들이 성실하게 준비하고 연구하며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힘껏 돌보아야** 한다(교회법 제785조;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33항 참조).

III. 신영세자 신앙적응을 위한 지침 -인천교구 선교국-

세례 받은 뒤 1년 안에 냉담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러니 이 시기는 예비신자 교리교육 기간만큼 중요하다. 견진성사를 받을 때까지 새 영세자들에게 계속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서 본당 공동체와 신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 새 영세자들이 소공동체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세례식 때 반원들이 모두 함께 축하해주는 것은 물론 세례 후 첫 소공동체 모임 때는 간단한 축하식을 준비한다. 그럴 때 새 영세자가 소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새 영세자가 소공동체 모임에 빠질 경우에는 곧바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소공동체에 익숙해진 다음에 신심단체 가입을 권유한다.

무엇보다 새 영세자가 소공동체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심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되도록 소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소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면, 대부모나 반장이 그에게 알맞다고 생각하는 신심 단체 가입을 권한다.

3. 본당 차원에서는 새 영세자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최소한 6개월 동안 예비신자 교리교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후속 모임을 갖도록 한다. 첫 후속 모임 때는 첫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4. 새 영세자가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참석한다. 특히 새 영세자의 가까운 이웃에 사는 반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미사에 참석한다. 평일 미사도 자주 참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5.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6. 새 영세자들이 읽을 만한 신앙 서적을 자주 선물한다. 특별히 대부모는 대자녀의 영명 축일을 챙겨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될 만한 신앙 서적 등을 선물한다.

7. 본당, 지구, 교구에서 실시하는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신앙 강좌, 성서 강좌, 성서 모임, 피정, 성지 순례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함께 참석한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참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IV. 신비교육 -강우일 주교-

... 다만 성체성사의 의미와 가치 위상에 대한 신비교육이 부족해 신자들의 성체성사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가 떨어져가고 있다. 비교적 단기간의 세례성사 준비 과정으로 신자들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소화하지 못한다. 이러한 신비교육은 짧은 이론적 설명과 해설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실천적 교육과 공동체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나오지 않게 되는 이유가 다양하겠으나 주일 미사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은총과 구원을 받았다는 체험이 부족하다는 데 제일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성체성사가 은총과 구원 체험의 현장이 되지 못하고 단순한 의무 기도시간 또는 형식적 종교 행위로밖에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사가 단순한 형식적 전례 행위가 아니라 은총과 구원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서두르지 않는 충분한 신비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례 개혁 이후 세계 여러 나라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부활해 예비신자 교리교육과 새 영세자 신비교육(Mystagogia)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별 성인 예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례성사를 서두르는 경향으로 이런 과정을 상당히 생략해 왔다. 이제는 우리도 온전하고 충분한 교리교육과 신비교육 기간과 내용을 살려야 할 때가 왔다. 충분한 신비교육 과정은 성직자 수도자 교리교사 개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본당 공동체가 함께 동반해 그들이 공동체에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지고 친교와 일치 의 인간관계가 건설되며 삶을 나누며 서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체험이 이뤄질 때 비로소 명실 공히 참된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신자들은 입교 전부터 본당의 기존 소공동체와 연결을 갖고 소공동체가 이들을 동반해주며 그들이 한 식구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졌다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동반을 통한 구체적 신앙 체험 나눔과 공유가 전제될 때 신자들은 주일 미사에서도 공동체 구성원들과 만남에 기쁨을 얻고 한 하느님 백성으로서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욕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1차 정기회의 참가기, 평화신문 2005. 11. 06).

V. 새로 입교한 평신도의 재교육 -김몽은 신부-

인간 사회에는 언제나 기복(起代)이 있고, 명암(明瞞)이 엇갈려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구나 최초로 신앙에 들어섰을 때는 굉장한 기쁨과 희망에 부풀어 갖은 열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열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시일이 지나면 그 열성과 기쁨이 시들어 이에 대처해서 또 다시 회의와 갈등과 자기모순 안에 빠지는 수가 있다. 이러한 시기를 최초로 맞이하는 새로 입교한 신자들에 대한 재교육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본다.

신앙의 본질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복음이 전하는 그 본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자칫 표면적인 혹은 감상적인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틀어와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실망을 느끼기가 쉽다. 그것은 다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몰아오고, 새로운 방향의 길로 나가게 하는 최초의 시련이다. 그것은 또 성직자와 구교우들의 표양에서 오는 실망일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직 신앙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영세자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일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새로 입교한 신자들의 재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더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몇 가지 주요한 요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다. 즉 신앙이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교회는 인간이 모인 단체이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이 조직한 단체가 아니라 하느님이 세우신 것임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만민을 당신의 사랑의 은총으로 초대하는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한 복된 사람들이라는 자각을 보다 깊게 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무한히 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기쁨에 충만한 생활이 곧 신앙생활임을 인식케 한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은, 역설이지만 진정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서,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형제애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다시금 세속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전에 가졌던 가치관을 불식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쓸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인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그 밖의 모순된 인간 실존의 아픔

앞에서 구토(嘔吐)를 느끼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추락되고 소외(蘭外)돼 가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까지도 회의를 느끼고 등한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것은 신앙을 하나의 윤리관으로서만 보는 피상적인 관점이 자아낸 스스로의 부족에서 오는 모순이다. 이것을 극복시켜 주기 위해서도 재교육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하느님의 구원의 목적은 만민이 다함께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와 악(惡)은 그러한 인간의 불신에 대한 하느님의 넓으신 아량의 채찍으로서의 섭리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교회가 가지는 약점, 즉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아직도 희박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강조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에 응답한 자들이지만, 하느님은 결코 인간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시려 하지 않고, 한 백성으로서 집단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더 교회와 일치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안에 머물고 그 안에 머무름으로서만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된 생활로서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쁘고도 희망에 넘치는 증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이 증거생활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봉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봉사하는 생활로서 이룩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VI. 보도 자료

1. 신 영세자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망미 성당 홈페이지2008.07.02

예비신자들은 본당에서 6개월에서 10개월 동안의 교리 교육 후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2007년 우리 교구 교세 통계를 보면 신영세자가 8,048명이 늘었다. 하지만 성당을 나오는 신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성당에 오지 않는 신자 중 신 영세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교사 목국장 전동기 신부는 “이와 같은 현상은 세례후 후속 조치가 없어서이다. 예비자 시절에는 열심히 교리를 배우다가 세례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며,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다. 즉, 소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신 영세자들이 잘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본당 신부들의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신영세자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더 이상 냉담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본당에서도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신 영세자 보살피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활천성당(주임 : 김경욱 신부)은 줄어드는 신영세자들을 위해 지난 3년간 세례 받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앙대회를 개최했다. 오랜만에 성당을 찾은 신자들은 서먹하기도 했지만 고백성사를 보고 성체 강복을 하면서 신앙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또한 봉래성당(주임 : 김창재 신부)은 신영세자 모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자들 간 얼굴을 익히고 신앙 공부를 하는 등 활기찬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 서울 포이동본당 새 신자 재교육(노숙자에 무료급식봉사)

지난해 12월 성탄 때 세례받은 서울대교구 포이동본당(주임 이상철 신부) 신영세자 15명과 신자들은 10일 저녁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자들 무료급식봉사에 참가해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포이동본당이 ‘신영세자 재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현장체험. 예비신자 교리 때 배운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 40)라는 복음 의미를 삶의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것이다.

신영세자들은 서울대교구 카리타스봉사단 총무 조창규(이레네오)씨로부터 노숙자를 대하는 표정과 언어, 봉사자의 자세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고 이날 노숙자 무료급식에 참여했다.

포이동본당은 갓 세례를 받고 아직 모든 게 생소하고 어색하기만한 신영세자들이 신앙생활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도움으로써 쉬는 신자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신영세자 재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신영세자들은 현장체험을 비롯해 세례 받고 한 달 후 첫 고해성사와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려다 목숨을 바친 절두산 성지순례, 피정, 떼제 기도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신자교리 때 공부한 것을 되새겼다. 또 21일 주일에는 교중미사 독서와 신자들의 기도, 미사 안내 같은 전례봉사를 비롯해 미사 후 만남의 방 간식준비, 현금 계산 등 성당생활의 모든 것을 경험할 예정이다.

포이동본당 이상철 주임신부는 “세례 받고 난 후 신영세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이들 중 상당수가 쉬는신자가 될 수 있다”며 “신영세자 재교육은 이들이 신앙생활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성당에서 직접 만들어온 계란 프라이를 노숙자들에게 나눠 준 김채주(이레네, 38)씨는 “노숙자 급식봉사를 통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던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강하게 느끼게 됐다”며 “세례 받고 난 후에도 잘 챙겨주셔서 성당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서영호 기자 amotu@pbc.co.kr

3. 예비신자 복 -조기동(인터넷에서)-

교리 봉사자를 하면서 나는 유난히 예비신자 복이 많은 편이다.

이번에 박 수성이란 분이 도토리묵가게를 정리하고 중국으로 이민을 가시면서 도토리묵을 아주 많이 가져 오셨다. 예비신자들과 연령회 어르신들, 교리 봉사자 및 나눔 봉사자, 성가 봉사자가 모두가 맛있는 도토리묵을 실컷 먹었다. 중국에서는 성당을 찾기가 찾기 힘들 것 같아서 묵주기도 테이프와 기도문을 선물로 드렸다. 우리 부반장은 개신교에서 개종한 분인데 매주 우리 반 학생들에게 교리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다.

그리고 주일 오후 2시 반에는 종합 운동장에서 모여 수리산 산행을 하는데 거의 5시간 이 넘는데도 몇 분이 참가하고 있다. 나도 미안하여 교리교안, 전례, 성사, 성서입문 등 도움이 될 자료들을 이메일로 모든 예비신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언젠가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은 세례를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며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주일 미사가 끝나고 나면 함께 차를 마시거나 각자 돈을 각출하여 점심을 먹기도 한다. 내 노력에 비해서 좋은 예비신자들을 많이 만났다. 7개월 동안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있는 모습을 보면 왈칵 눈물이 나기도 한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4주간의 신비교육(음식나눔, 성경, 세족례와 고해성사.) 그리고 이어지는 견진 교리를 배운다.

이번 받은 성경공부를 하겠다고 하며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려고 한다.

신앙심이 약해지려고 하면 새로운 예비신자들의 정성 때문에 정신을 반짝 차리게 된다.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세례식에 참여하여 새 신자들과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이다. 성령님, 부족한 저희 안에 오셔서 사

랑의 불을 놓으소서. 아멘

4. 선교 · 냉담교우 찾기 노력 재교육 강화로 해결해야

-가톨릭신문 2004. 8. 29-

한국교회가 냉담교우 문제로 이 땅의 복음화 과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본당에서 교적상 신자들 중 미사 참례율은 불과 3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렵게 전교해 영세를 시키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냉담교우의 길로 들어가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니, 이는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우리교회가 신영세자들을 위한 관리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선교」를 기치로 내걸고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가두선교」 「신영세자 찾기 운동」 등 현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선교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천주교를 알려왔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에 있다. 신자들이 선교를 통해 이웃 전교에 앞장 서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성찰해볼 문제다.

본당에서 레지오 마리아 등 신심 사도직 단원으로 활동하는 일부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신영세자의 경우 처음엔 열정을 갖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본당 공동체에 동화되지 못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자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일부가 아닌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자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냉담교우들을 예방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신자라지만 교리에 대해 무얼 알아야 선교하지요』

『성당에 나가도 함께 어울리기 힘들고 재미도 없고 해서 냉담하게 됐어요』

내가 아는 신자들 중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신자와 냉담하게 된 신자의 이유있는(?) 항변이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재교육 강화의 필요성이다.

사실 많은 신자들의 경우 성서말씀이나 교리에 있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선뜻 남에게 전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이뤄지지 않아 서로 간에 작은 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쉽게 성당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나눠 추진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생명문제」 「가정문제」 등 사안에 따라 외부강사 초빙 등을 자주 마련해 신자들에게 시대 흐름에 맞는 올바른

른 신앙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 사목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 본당 공동체 분위가 쇄신되고 변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5. 선교기획 - 서울 낙성대 본당 신영세자 재교육 프로그램

-평화신문 200년 9월3일 593호-

서울대교구 낙성대본당(주임 이재을 신부)이 지난달 30일부터 신영세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프로그램은 신영세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앙생활에 소홀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6개월 코스의 이 재교육 프로그램은 신영세자 7명씩 그룹을 만들어 매주 모임을 갖도록 하고 성서읽기, 묵상, 교재공부, 신자생활 실습 등을 교육한다. 신영세자들은 △성서를 읽고 그 의미를 생활 속에서 새기고 △이재을 주임신부가 신자 재교육용으로 제작한 교재를 갖고 미진한 교리를 보충하며 △미사전례와 각종 성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실제로 따라 해보는 실습시간을 갖는다.

이 신부가 만든 교재 양육과 복음선교를 위한 전례와 교리는 기도, 은총, 십계명 등 주제별로 간단한 설명과 예화 그리고 성서말씀을 덧붙여 주요 교리들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또 고해성사와 십자가의 길 등을 실제로 해보는 신자생활 실습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영세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본당은 이 재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지난 4개월간 40여명의 교육 봉사자를 양성했다. 신영세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어 줄 교육 봉사자들은 4개월 동안 미사전례와 삼위일체론 교육방법론 리더십 등 14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다. 본당은 앞으로 교육 봉사자들을 위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이다. 낙성대본당은 이와 함께 신영세자들이 신앙생활의 보금자리로 삼아야 할 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33개 구역의 79개 반을 122개 반으로 세분화했다. 이는 신영세자들이 각 구역과 반모임이라는 작은 교회공동체를 통해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을 신부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소공동체 활성화 노력을 병행하면 냉담교우가 발생하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VII. 신영세자 · 신자 재교육 참고 도서

〈교리교육 자료〉

○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엮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하 ‘교리서’) 내용을 전체 46과로 정리하여, 각 과에 맞는 성경구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문답, 성인들의 기도, 해설을 곁들여 구성.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번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리서’ 구성에 따라 가톨릭 신앙의 전반적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참고서. 경향잡지 ‘나는 믿나이다’ 연재물과 같이 읽기를 권장함.

○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이기정 지음, 성바오로)

주요기도, 고해성사 준비 요령, 혼인성사·병자성사 절차와 신청방법, 본당의 구성과 살림살이, 전례의 의미 등 신앙뿐 아니라 성당생활이 낯선 신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내용 소개.

○ 「질문 있습니다」 (가에다노 콩프라 지음, 김수현 옮김, 바오로딸)

교회의 핵심 교리를 3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 각 단원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의문사항과 답을 제시하고, 각 단원의 시작과 끝에 단원의 내용을 압축하여 재치 있게 표현한 만화 수록.

○ 「가톨릭 교리 요약 교리문답」 (이성운 엮음, 기쁜소식)

신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신앙의 기본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전제로, ‘교리서’ 구성과 「천주교 요리문답」의 형식을 따라 엮은 문답집.

○ 「5분 교리 : 신자 재교육을 위한」 (이중섭 엮음, 가톨릭신문사)

복음과 가톨릭 교리를 삶의 구체적 환경에 적응시켜 지속적인 교리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 계시와 신앙의 의미, 이웃 종교 이해, 성모신심의 근거, 성사 거행의 역사와 의미, 죽음과 부활신앙 등 다양한 주제의 교리들을 5분 분량으로 세분화하여 간결하게 설명.

○ 네이버 카페 ‘가톨릭 청년 피앗’ (cafe.naver.com/fiatfiat)

서울 명동성당 신자교육 공동체. 영성에 관한 글, 가톨릭 교리와 신앙생활문답, 준수성법, 각종 기도문, 미사전례 해설 제공. 오프라인 재교육 참가자 상시모집.

〈천주교 더 깊이 이해하기〉

- 「하느님과 세상」 (베네딕토 16세 · 페터 제발트 대담, 정중휴 옮김, 성바오로)
 믿음, 희망, 사랑을 비롯하여 하느님, 인간, 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신앙의 교의를 현대의 세속 문화와 융합하는 교리 강의.
-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 (페터 제발트 지음, 이기숙 옮김, 보누스)
 ‘그리스도교의 상징’, ‘예수의 이름’, ‘성경에 관한 상식’, ‘어부의 반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등 다양한 주제를 집대성하여 인류 모두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유산을 재발견하게 하는 책.
- 「천주교와 개신교(개정판)」 (박도식 지음, 가톨릭출판사)
 개신교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대화체로 서술한 책. 성모신심, 고해성사, 가톨릭 교계제도와 성경 해석 등 개신교와 구별되는천주교의 전통을 설명.

〈이렇게 기도합시다〉

- 「출발! 기도 여행」 (한상화 지음, 성바오로)
 미사전례에 쓰이는 기도문과 묵주기도, 「가톨릭 기도서」의 기도문 등을 설명하고, 생활 속에서 짬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기도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생활화하도록 안내.
- 「나에게 맞는 기도 방법 찾기」 (그레이엄 다우 엮음, 강우식 옮김, 바오로딸)
 ‘기도의 시작’, ‘언어를 통한 기도’, ‘성경말씀을 이용한 기도’, ‘침묵 안에서 기도하기’, ‘삶을 통해 기도하기’의 다섯 주제로 구성. 부록으로 기도 모임 지도자를 위한 안내, 상상력을 활용한 묵상 지도를 위한 안내 수록.
-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안드레아 가스파리노 지음, 성 바오로딸 수도회 옮김, 바오로딸)
 24가지 주제로 기도의 원론부터 실천적인부분까지 소개. 기도문을 암송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을 하느님께 열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도록 돕는 책.
- 「기도의 체험」 (안토니 블룸 지음, 김승혜 옮김, 가톨릭출판사)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 성인들의 일화 등을 예로 들어 기도 방법을 제시하는 기도 입문서.

※ 자료 출처 : 2008_08 경향잡지 2008년 8월호

VIII. 신자 재교육에 대해서

1. 신자 재교육(상) 평화신문 2008. 3. 9

“제가 보기에 가톨릭 신자 90%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정체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체험하는 게 없습니다.”

태중 교우로 성당을 다니다가 7년 전 개신교회로 옮긴 김 모(41)씨의 평가다. 대다수 가톨릭신자들은 그저 주일날 성당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천주교는 교육은 많지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개신교회는 그렇질 않습니다.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단계별로 재교육 과정이 철저합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지독한 훈련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론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씨는 “최근 가톨릭신자 수는 늘고 개신교 신자 수는 답보 상태라고 하지만 내실을 도외시한 증가는 숫자놀음 이상의 의미는 없다” 면서 “가톨릭신자는 활동에 앞서 자신이 믿는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 개신교 신자의 일방적 비판이라고 흘려버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현실, 특히 ‘신자 재교육’ 문제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작은 거울임에는 틀림없다. ‘신자로서 정체성 부족’ 은 ‘신자 재교육 부족’ 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왜 신자 재교육인가

신자 재교육이 왜 중요한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敎)라는 뜻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즉 ‘그리스도 교육’ 이다.

바야흐로 평생교육 시대다. 현대사회가 어떤 일정한 연령대에 미리 정해진 교과내용을 배움으로써 끝내는 ‘분절교육’ 에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평생교육’ 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회 안팎으로 당면해 있는 숱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교회 평생 교육 시스템의 부재에서 찾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신자들이 내적으로 변함으로써 교회에 헌신하고, 나아가 그들을 신앙의 진리와 교회 가르침에 따라 사회를 복음화하는 사도로 양성하고자 할 때 가장 좋으면서 또 유일하다시피한 방법은 바로 교

육”이라고 입을 모은다.

■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교구 모 본당에서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 가타리나(39)씨. 초등학교 때 첫 영성체를 하고 줄곧 성당을 다녔지만 교육이라고는 3년 전 반장으로 임명되면서 받은 구역·반장 학교가 유일하다. 강씨는 “재미있는 강의는 가슴에 남는 게 없었고, 유익하다 싶은 강의는 대체로 지루했다”며 교육 과정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구역장의 재촉에 못이겨 억지로 교육에 참석한 경우도 많았다는 강씨는 “눈길을 끄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교육에는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다.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교육에 참석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다는 것이다.

강씨의 경우는 한국교회 신자 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사실 한국교회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소공동체 모임을 통한 교리, 혼인강좌, 각종 성경공부, 대림·사순특강, 노인대학, 각종 피정 및 세미나(교리교육) △교구나 지구 차원의 사목위원 교육을 비롯해 주일학교 교사·소공동체 지도자·각종 봉사자·단체간부 교육(직능교육) △각종 신심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등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특정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본당에서 받는 교육은 예비신자 교리로 끝나고 만다는 점이다.

아울러 본당별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교육마다 내용과 성격이 다 달라 전인적 신앙 성숙을 꾀하기 어렵고, 교육간 연계성이 거의 없어 참다운 재교육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 또한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교구 각 본당에서 실시한 교육(2005년)을 한데 모아 정리한 「본당 교육 현황」은 본당 신자 재교육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당 교육 현황」에 따르면 일부 본당을 제외하고는 본당에 연간 교육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교육이 많았다. 또 일부 강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교회 입장을 전하는 교육이 많이 부족했다. 아울러 대다수 교육이 강사에게만 의존하는 주입식 강의였다. 현행 신자 재교육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 신자들의 낮은 관심

앞서 예를 든 강씨처럼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신자들이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젊은층에게 주로 나타나며, 이들에게 신앙생활이란 주일미사 참례가 전부나 마찬가지다. 본당에서 이들의 눈길을 끌 만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교육이 삶과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과 함께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준성(서울대교구 일반교육부 담당) 신부는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참가하는 신자만 계속 참가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얻어가는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비체계적 교육 구조

신자 재교육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꼽는 것이 바로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 구조다. 성경공부, 특강, 피정, 꾸르실료, 레지오 마리아 등 이른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소화할 능력이 없는 신자들에게 전인적 신앙 성숙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요구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자신의 신앙을 축적된 토대 위에서 종합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한 채 일회성 지식 습득이나 체험에 머물게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나마 그런 교육이라도 받는 신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큰 문제다.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 총동문회 박종택(베드로) 회장은 “다수 신자들이 예비신자 교리 직후부터 교육에서 멀어지는 것은 물론 설사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육 체계가 종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올바르게 식별하고 비그리스도교적 조류에 맞설 능력을 갖추기 힘들다” 며 “단계적·체계적이지 못한 신자 교육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 재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말했다.

▲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교육 내용

신자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다. 본당에서 교육계획을 세우는 사목위원들의 경우 교육에 관한 비전문가일뿐 아니라 주로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이나 경험만을 중심으로 교육계획을 짜다보니 신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측 마음대로 개설해놓고 신자들을 동원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손님에게 무엇을 먹을까 물어보지도 않고 식당 주인 마음대로 정한 메뉴를 주고 맛있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셈이다.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가 작성한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2007년)에 따르면 신자들 교육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 교구(지구) 교육 7.5% △ 수도권 교육 11.2% △ 평신도단체 교육 14.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는 신자들 수준과 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 단조로운 교육 방법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떠올리면 큰 강당에 평신도 수십, 수백 명이 모여 신부 강의를 듣는 모습이 가장 일반적이다. 열에 아홉은 앉아서 듣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나눔식 교육이나 파워포인트, 영상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일방적 전달 교육은 지루할 수밖에 없다. 정신적 공허감을 느끼는 신자들은 교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함께 하느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영성 교육을 원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2. 신자 재교육(하) 평화신문 2008. 3. 16

신자 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신자 재교육, 즉 신자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다. 뜻있는 이들은 한국교회 성장이 둔화된 배경을 교회 평생 교육 시스템의 부재에서 찾는다. 유아세례는 급격히 줄고, 주일학교와 청년모임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점점 고령화돼가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혼·사회 정의·생명·부활 및 영생 등 제반 사회문제와 관련해 교회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타종교 신자나 비신자들과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내적으로 성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화 사도로 양성하는 데 교육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학자는 “한국교회의 양적 위축과 질적 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교회가 교육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단언했다.

▣ 평생교육 연구·지원 기관 설립 및 단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자 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비신자 교육과 견진교리에 그치지 않고 평생에 걸쳐 받을 수 있는 단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가톨릭 평생교육 연구·지원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러한 제안은 2002년 서울대교구 전체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한 시노드 의안에서도 확인된다. 의안은 평생교육 차원의 체계적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세례 이후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데 주목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단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는 사목센터를 세운 뒤 이를 중심으로 교구-지구-본당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교육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개별 본당·지구·교구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문은 ‘신자 재교육’ 문제를 다룬 거의 모든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현만(원주교구 정선본당 주임) 신부는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새 신자를 양성하는 것만큼이나 재교육이 중요함에도 한국교회 재교육은 단발적이며 열성적 신자만 참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후 “이를테면 ‘1~7 단계 프로그램’과 같은 단계별 교육 과정을 만들어 영세 후에도 계속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신부는 또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참조할만한 모델로 개신교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로 설립될 기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회 안팎의 변화된 요구에 신자 재교육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

로 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 재교육과 관련,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의뢰해 준비하고 있는 ‘교육 편람’은 한국교회 교육을 집대성하는 자료집으로,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교육 편람’에는 유형별 교육 제목과 내용, 방법, 교재, 강사진 등이 자세하게 소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자 재교육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전력투구해야 할 분야’라는 한홍순(토마스)한국평협 회장은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단계적 교육 체계를 세운 뒤, 성체분배자 교육을 받아야 성체를 분배할 자격을 얻듯이 일정 단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신자에게만 사목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 방법 다양화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 방법의 다양화다.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전달하는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을 살펴본다.

▲ 학습자 중심 교육

대부분의 교회 교육은 교육 대상자 구분 없이 정해진 인쇄물을 이용하는 대규모 주입식 강의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신자들이 원하는 교육 방식과 크게 다르다. 모 본당 신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자들이 원하는 교육 방식은 ‘신자 참여 중심’이 77%로, 나머지 항목인 ‘강사 위주 강의’나 ‘시청각 자료 활용’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단조로운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교육은 식상하다는 것이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선교·신앙교육’ 편(13항, 15항)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학습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을 모색한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교회 가르침이 더 효과적으로 교육 대상자의 기억에 남고 정신과 마음에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주입식 교육과,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함께 하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나눔식 교육을 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강의식 대규모 교육과 나눔을 쉽게 하는 소규모 교육을 병행하고, 형편이 된다면 대상자를 찾아가는 교육 방식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중략) 교재는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실생활과 밀접히 연결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삶과 관련된 쉬운 교재, 연령·성·직업·교육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교재, 시청각 교재,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 첨단 매체 활용

통합사목연구소가 작성한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보고서에 따르

면 신자들의 미디어 이용률은 △ 평화방송TV 31% △ 인터넷 19% △ 평화방송 라디오 11%로 나타났다. TV는 장년층에서, 인터넷은 젊은층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교회 미래인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고 교육하기 위해선 인터넷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신자들을 교육하는 데 인터넷만큼 유용한 도구도 드물다. 교구를 초월한 사이버 교육기관을 만들어 학점 은행식으로 연차별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서울대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예비신자 교리는 신자 교육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 매우 현실적이고도 유용한 모델이다. 평화방송TV와 라디오 역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자 재교육 매체로 손색이 없다.

▲ 교육 자료 편재화

공식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못지않게 교육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보 제공의 형태를 띤 교육 자료를 신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후보의 특정란에 교리 관련 지식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등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이나 만화로 보여주는 식이다. 특히 후보는 신자 다수(60%)가 ‘대부분’ 또는 ‘전부’ 읽을 만큼(통합사목연구소 보고서) 파급효과가 큰 매체다. 성당 내 벽면이나,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에 중요한 교리상식을 보기 쉽게 붙여놓을 수 있다.

임철일(대건 안드레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신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생활하는 곳곳에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별 본당 차원이 아니라 전국 차원의 교육 전문 기관에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강론의 교육화

평생교육 차원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미사 강론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강론 메시지가 신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교육적으로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된다.

평신도를 위한 평생교육의 두 축인 ‘신앙교육’ 과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 가르침’ 을 적절히 조화시킨 강론이 이뤄진다면 평생교육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강론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지원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전문 기관에서 해야 할 것이다.

3. 구교우들의 재교육 문제(再教育問題) -최익철 신부-

구교우라면 흔히 대대로 가톨릭 신앙을 받드는 가정에서 태어난 교우를 말하고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소위 “태중교우” 일 것이다.

그런데 선조가 가졌던 열렬한 신앙을 이어받아 자신도 열심히 수계를 하면 더 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지 않는 교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는 크기도 하지만, 오늘에 와서만 생긴 문제도 아니다. 특히 그들이 구교우인 까닭에 남달리 신앙심도 두터우리라, 그 생활도 타에 모범이 되리라는 선입감에서 이에 어긋날 때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면 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하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하나의 구호같이 “이래봐도 나는 구교우야, 성당에 가진 않아도 내 마음 속에는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있어!” 또는 “나, 다 알고 있어, 내 걱정말아 왜 참견이야”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어서 영세했나? 우리 부모가 시켜서 했지. 난 상관없어” 한다.

그들의 이런 말은 기성 세대나 전통에 대한 이유없는 하나의 반항이거나 아니면 자기 변명, 혹은 일시적 편의주의를 표방한데 불과하다. 그들은 교회가 어떻다는 것도 모르고 알아도 수박 겉핥기일 뿐, 신앙의 진미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다 아는 체하니 이들에 대한 사목이 매우 곤란하다.

특히 어릴 때 세례는 받았지만 그 후 교회와의 접촉은 전혀 없고 그럴 기회조차 없었을 경우, 참으로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영세했다는 자부심은 있으나 아무것도 모르니 성당에 다닐 재미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사 배우자니 쑥스럽고 남의 이목이 있는 까닭에 결국 외인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더욱 지속되어 간다. 그렇다고 그 탓을 그들에게만 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남을 감안해서 교회에서는 고민하며 그 대책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책으로 우선 그들에게 베풀 “재교육”을 내세울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 재교육은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하기도 하지만 이를 거론하기에 앞서 그 원인들을 찾아 규명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된다.

그 원인들 가운데 첫째는 가정적인 것, 특히 부모들이다. 전과 같이 난 지 사흘 만에 영세는 시켰지만 부모 자신이 오래도록 냉담했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자연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다. 심지어 세례를 받은 사실마저 부인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우선 타고난 종교심을 일깨우고 문헌 신앙을 발로시키는 일부터 해야겠다. 가족끼리 매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다.

둘째 원인은 교회 자체다.

자녀를 영세시킨 부모의 행방을 모르면 모를까, 냉담한 부모들에게 관심이 없고 돌보아주는 성의도 교회에 없는 탓이다. 또 첫영성체 할 나이에 그런 아이들을 조사

해서 첫영성체 할 기회를 주지도 않은 탓이다. 서구에서와 같이 첫영성체를 성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회개할 계기가 되겠고 또 이 시기가 자기 주관을 굳히는데 아직 일러서 올바른 신앙심을 넣어주는데 좋고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의 대상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구교우들이다.

자라는 동안 부모 혹은 교회로부터 이렇다 할만한 종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 관심이나 종교 의식을 가질 기회도 갖지 못하고 성인(成人)이 된 이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외인이다. 이들 중에는 영세한 사실로 자신이 교우인줄 알고 있는 이가 있고, 전혀 모르는 이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신자로서의 의식과 의무를 각성시키고, 배워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극을 주어 외인이 입교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밟게 해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완전히 외인으로 간주해서 아주 시초부터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런 “교우 아닌 교우들”은 도대체 성당에는 접근도 않고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또 각자가 걸어온 과거가 다르고 처해있는 여건이 같지 않으며 재교육에 응할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이들에게는 결국 1대 1 즉 개인 “접촉”을 자주 해서 거리감을 없애고 받은 “신앙 유산”의 존귀함을 자각하게끔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셋째, 원인은 구교우들 자신이다. 냉담하게 되는 큰 원인은 ① 교회 지식 부족과 ② 신앙생활 부족, 두 가지다. 자꾸 읽고 보고 듣고 배우고 지도도 받아야 하는데 않는다. 다음은 ③ 인간의 타성이다. 꾸준한 노력 없이 더구나 신앙은 그 유지조차 불가능하다. ④ 가정적 사회적 급변에서 받는 물질적 정신적 타격과 ⑤ 교회측, 즉 성직자, 수도자, 간부들의 부당한(?) 언사나 취급으로(그것이 사실이든 오해이든) 교회를 멀리하고 급기야 신앙마저 포기한다. 신앙이란 그렇게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좌우되는 값싼 것이 아님을 자각해야겠다. ⑥ 인습적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도 갓 들어온 교우들에게는 우월감까지 갖는다. 이런 구교우들은 흔히 말하는 “신자 재교육”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구교우들의 문제가 재교육이란 한 가지만 가지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부언하여 둔다.

4. 평신도 지도자의 교육 -유재국 신부-

오늘의 한국 교회는 여러 사목분야에서 그 직책 수행에 노력하고 있다.

오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허다하다.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각기 고유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고 본다. 그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의 교

육도 하나의 커다란 문제인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들이 신비롭게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교회의 발전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협조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황은 어떠한가?

불행하게도 오늘의 한국 교회는 침체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평신도 지도자들의 무능력과 자질의 결여, 몰이해와 교육의 부족, 사명감의 결핍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목을 맡은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 각기 고유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상호 협조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성직자의 직책이나 교육에 관해서는 주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 밝혀두어야 할 것은 교회 사목이란 성직자의 독점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 사목은 어디까지나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의 여러 사목 분야에서 성직자들이 독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비록 성직자와 평신도가 공동으로 사목을 수행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많은 오해와 마찰과 불화 등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한 가지 밝혀 두어야 할 문제가 있다. 모든 사목 분야에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성직자 사도직과 평신도 사도직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각기 고유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상호 협조해야 하며 상호간의 직책을 침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상호간의 직책을 침해하거나 간섭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마찰과 불화가 생기게 된다.

그러기에 평신도 지도자들은 그들의 오해를 버려야 하고, 그들의 고유한 직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명실대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이 없는 평신도 지도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집니다』 (마태15, 14)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가끔 평신도 사도직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격도 없으면서 권위를 남용하거나, 위선자로 행세하는 신자가 있다.

본당회장들, 사목위원들, 전교회장들 및 각종 액션 단체의 간부들 가운데는 구교우가 있는가 하면,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소위 구교우들은 전통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보수적이고 권위의식이 강하며, 세례받은 지

몇 년 밖에 안 되는 지도자들은 소위 진보파라는 이름아래 너무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한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지도자로서의 적격자도 아니라고 본다.

교회의 지도자는 일반 사회 지도자의 자격을 가져야 할 것은 물론, 참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격있는 지도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오늘의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조직적인 교육 기관으로는 서울의 가톨릭 교리 신학원과 대구의 가톨릭 신학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두 학원에서는 주로 전교사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 두 학원의 정규과정을 받을 수 없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서울의 교리 신학원에서 주 3회 야간으로 교리 신학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교구에서는 교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단기 강습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수년 전부터 크리스찬 생활의 꾸르실료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은 한결같이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지도자 자신들이 각자의 직책을 자각하고 그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배우겠다는 마음가짐과 노력인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격을 인정하며,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평신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일방적으로 독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고유한 직책을 소유하고 있고,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권위의식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목 활동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본당은 단체적 사도 활동의 훌륭한 표본이다. 본당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적 차이점을 모두 하나로 묶으며,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평신도들은 사제들과 친밀히 결합되어 본당 안에서 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평신도교령 IO)

5. 서울 쌍문동본당 신앙교육 설문 결과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서공부' 가장 선호, 가톨릭신문 2005. 4. 24

일반신자들이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서공부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접근방법이 부족해 이를 위한 새로운 사목 방안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 가입과 운동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교구 쌍문동본당(주임=김영관 신부)이 본당 신자들의 영성고양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올 초 20세 이상 성인신자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서 드러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신자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응답자의 23%인 135명이 성서공부를 꼽았고 다음으로 피정(17.9%), 전례교육(11.9%), 대축일 특강(10.1%) 등을 들었다.

성서공부 중 공부하기를 원하는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 그룹성서(26.8%)를 필두로 ▲ 성서 40주간(26.1%) ▲ 영어성서공부(11.8%) ▲ 여정(10.4%) 등을 택했다. 또 본당에서 실시하는 교리교육이나 영성훈련 등 신자재교육에 대해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56%)는 의견을 비롯,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10.4%)는 등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는 각종 교회 출판물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는 75.6%가 주보를 읽는다고 응답한데 비해 교회신문과 잡지는 각각 21.7%, 14.5%만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관 신부는 『재교육에 목말라하고 있는 신자들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며 『본당의 현실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6. 서울 화곡본동 특강미사로 신자 재교육 효과 높여,

가톨릭신문 2002.6.9

5월 26일 주일 서울 화곡본동본당(주임=차원석 신부) 오전9시 미사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연출됐다. 미사 강론을 하기 위해 제대 위에 오른 이는 강화도 전등사 주지 계성스님. 이날 특강은 「종교간 관용정신」을 주제로 마련됐다. 본당에서 매주일 9시에 열리는 특강미사는 평일 신자재교육이 어려운 신자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마련됐다. 특강미사는 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저명인사들 특강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로서 신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 대림시기부터 마련된 이 시간에는 대림, 사순특강과 견진 특강, 일반인들의 명강의를 대체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러운 신자 교육장으로 큰 몫을 하고 있다.

IX. 구체적인 실천 사례

1. 망미 성당

- A. 2006년도 신영세자 후반기 교육
- B. 신영세자 교육 ‘하느님을 찾아서’

2. 활천 성당

3. 수원 교구 커리큘럼

1. 망미 성당

A. 2006년도 신영세자 후반기 교육



【2006. 01. 08~02. 19(6주간)】

시작기도

十 성호경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6주 동안 교회 안의 활동에 대해
듣고 배우고자 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신앙생활에 불 밝혀주소서.
그리하여 본당 안에서
저의 나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부르심에 순명하며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어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게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I. 신영세자 교육 (제1주)

1. 신영세자 후반기 교육 안내 -성인교육분과-

가. 목적 : 세례를 받았지만 교외내의 모든 면에서 낮설고 서먹서먹한 신 세자들을 각종 단체 및 동호회에 적극 가입하게 함으로서, 교회 및 신자들과 친숙하게 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져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나. 일시 : 매주 1회, 6주간 (1/8 ~ 2/19), 09:00 ~ 10:00(1시간)

다. 대상 : 2005년 12월 24일 영세자(27명)

라. 장소 : 3호실

마. 세부 추진 계획

일 정	담당분과	강 사	교육 내용	봉사자
제 1주 (1/8)	성인교육분과 회장단	분과장 총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영세자 재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내용 안내 □ 성인교육분과의 역할 및 소속단체(성체조배회, 성령기도회, 올드레아, ME), 동호회(탁구) 소개 □ 창세기 말씀 맛들이기 배부 및 안내 ■ 본당 역사 ■ 2006 본당 사목 방침 ■ 본당 조직 등 	
제 2주 (1/15)	성인교육분과 전례분과	차 장 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의 연중 흐름 안내(전례력) ■ 전례분과의 역할 ■ 소속단체(제대회, 성가대) 소개 	
제 3주 (1/22)	성소분과 청소년분과	분과장 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분과의 역할 및 소속단체(복사단, 복사어머니회, 예수성심회, 성모회) 및 동호회(탁구) 소개 □ 청소년분과의 역할 □ 소속단체(자모회, 교사회, 청년회) 및 동호회(통사모) 소개 	
제 4주 (2/5)	홍보분과 사회복지분과	분과장 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분과의 역할 ■ 소속단체 및 동호회(디카모임) 소개 □ 사회복지분과의 역할 □ 소속단체(연도회, 성우회) 및 동호회(소리사랑) 소개 	
제 5주 (2/12)	기획시설분과 구역분과	분과장 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시설분과의 역할 및 소속단체(반석회, 누룩회, 포도나무회), 동호회(낚시, 인라인스케이트) 소개 □ 구역분과의 역할 □ 형제/ 구역 모임 등 소개 □ 소공동체 소개 및 안내 	
제 6주 (2/19)	선교분과 성인교육분과	분과장 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분과의 역할 안내 ■ 소속단체 소개(레지오마리아, ME) □ 나눔 - 체험담 발표 □ 총평 - 신부님 	

2. 신영세자 신앙생활 입문 자세

가. 신자가정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것

- ① 성서:
- ② 가톨릭 기도서:
- ③ 성가집:
- ④ 십자고상:
- ⑤ 성모상:
- ⑥ 묵주:

나. 신자들의 여섯 가지 의무

- ①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 참례:
 - 매주 금요일 - 14세 이상 금육
 -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 금식(18세 - 60세)
- ② 금육과 금식의 의무:
- ③ 판공성사의 의무:
- ④ 영성체의 의무:
- ⑤ 교무금의 의무:
- ⑥ 혼인성사와 관련 교회법을 지키는 의무:

다. 주일미사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은 미사에 참석하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주일미사 참례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교회법전)
-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참여시 : 대송(주님의 기도(33번), 묵주기도, 선행, 성서 봉독)

3. 성경공부의 필요성

4. 본당소개 -총무-

가. 지역신앙의 뿌리

1) 장대골 순교

○ 1866년 병인년 박해의 여파로 1868년 무진년 8명[신앙의 진실함을 끝까지 증거한 이정식(당시 80세, 요한), 그의 장남 이관복(프란시스코), 요한의 아내 박소사(마리아), 요한의 동생 이삼근(베드로), 요한의 대자 양재현(동래 좌수, 말띠노), 옥소사(발바라), 차장득(프란시스코), 이월주(야고보)]의 순교자를 낸 장대골 처형장이 이웃 광안본당 근처에 있다.

○ 장대골 순교가 있는지 30여년이 지난 이 지역에, 1896년 밤대(현 연산동)에 살던 한말구(마르코)가 수영으로 이사를 오고, 전교하여 4가족을 입교시켜 교우수가 20명에 이르게 되었고, 1901년 부산진 성당의 르장드르(Regendre) 신부를 모셔 한말구의 집에 공소를 차리고 미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그해가 수영공소의 원년이 되는 것이다.

2) 수영공소

○ 어려운 사정에 겨우 5-6명이 남아 명맥을 이어가던 중, 1911년 동래 철마면 곰내공소(웅천공소)에 살던 김태일 베드로 가족이 이사오고, 곰내의 기루수 가족, 양산의 박봉달 요셉 가족이 이주해 옴으로 교우수가 30여명이 되었고, 부산진 성당(현 범일성당)에 있던 페셀(Peschell) 신부가 와서 판공성사를 주게 되어 공소는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 교구30년사 기록에는 1926년 신자수는 17명, 32년에는 38명, 해방전 해는 19명으로 되어 있다. 1953년 김 베드로의 장남 김정룡(시메온, 2대 공소회장)이 수영성당 신축 기성회장을 맡아 수영성당 건립에 힘을 쏟았다.

3) 수영성당

○ 6.25의 혼란 속에 수영에 주둔하고 있던 윌리엄 군중신부가 부지와 물자를 기증하고, 초대 공소회장인 김베드로가 부지를 기증하여 수영공소 건립에 착수, 1955년 수영공소의 준공식을 갖고 1956년 184명의 신자수로 수영성당으로 승격되었다.

수영지역이 광안동 일대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곳에 성당을 지어 이름도 광안성당으로 바꾸었다.

나. 교계제도에서의 본당의 위치

○ 본당은 교회의 기초단위에 해당됨.

○ 교황청(교황) - 교구청(교구장 주교) - 본당(주임신부) - 공소(신부가 상주하

지 않음)

- 교구는 지역교회의 중심으로 교구장 주교의 위임에 의한 지역단위로 분할하여 본당을 나눔.
- 가톨릭은 ‘보편되다’ 는 뜻으로 전 세계, 전국 어디를 가든 하나의 교회로 이어짐.

다. 본당의 연혁

- 1982.
 - 2. 6 천주교 망미성당 설립(대지 780평)
 - 2. 21 첫 주일 미사 봉헌(최재선 초대 주교, 정재석 신부), 첫 주보 발간
 - 3. 4 도마성당과 사무적으로 완전 분리
 - 9. 12 성전건립공사 착공 및 기공식
- 1983.
 - 2. 17 제2대 주임 정환국(알로이시오)신부 부임
제1대 보좌 황철수(바오로)신부 부임
 - 9. 11 청년회 계간 ‘씨앗’ 창간호 발간
 - 9. 18 성전건립 2차 공사 착수
 - 10. 21 첫 견진 세례(남자 70, 여자 123명)
- 1984.
 - 2. 5 성전완공 및 축성식 거행
 - 6. 15 교리실 및 강당 칸막이 공사
 - 12. 20 수녀원 축성식
- 1985.
 - 2. 7 제3대 주임 황철수(바오로)신부 부임
 - 3. 성전 1층으로 옮김
 - 5. 19 첫 경로잔치(본당 강당 130명 참가)
- 1986.
 - 10. 5 주일학교 학생을 위한 버스 운영
- 1987.
 - 1. 22 이창섭(아오스탕)사제 서품
 - 2. 6 제4대 주임 황태웅(요셉)신부 부임
 - 8. 23 교육관(사제관)신축 기공식
- 1988.
 - 2. 6 조성제(엠마누엘)사제 서품
 - 2. 16 제2대 보좌 윤용선(바울로)신부 부임
 - 4. 10 교육관(사제관)완공 및 축성식
 - 5. 본당 첫 전화번호부 발간(174쪽 46배판)
 - 8. 15 레지오 성지순례(미리내 성지)
 - 10. 9 토현성당 분리
(당시 본당 신자수 5748명, 예비자 250명, 주일미사 참례자 2,100명)
- 1989.
 - 3. 26 본당 도서실 개관
 - 10. 5 제44차 세계 성체대회 참가(500여명)
- 1990.
 - 2. 16 제5대 주임 양요섭(요셉)신부 부임
- 1991.
 - 2. 2 조동성(요셉)사제 서품
 - 4. 5-7 토현성당 건립을 위한 바자회
 - 6. 9 상담실 개설
 - 7 사무실 및 성물판매실 이전
 - 9. 15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 개설
- 1992.
 - 2. 12 제6대 주임 손덕만(토마)신부 부임
제3대 보좌 최원오(빈첸시오)신부 부임
 - 3. 29 신용협동조합 창립
 - 4. 12 젊은이 소식지 제1호 발간
 - 7. 12 장년회 창립총회
 - 11. 14 35인승 버스 운행(누룩회)
 - 12. 25 망미성당 10년사 발간
- 1993.
 - 2. 16 제4대 보좌 박성태(그레고리오)신부 부임
 - 4. 망미회보 창간호 발간
 - 7. 5 김병로(라파엘)신부님 서품
 - 10. 18 성전 내,외부 보수공사 착공
 - 11. 14 본당사무실, 신협 신축건물로 이전
- 1994.
 - 2. 18 제5대 보좌 박명제(베네딕도)신부 부임
- 1995.
 - 2. 17 제6대 보좌 석관홍(마리오)신부 부임
- 1996.
 - 2. 3 광길섭(베드로)사제 서품
 - 2. 14 제7대 주임 함영상(비오)신부 부임
 - 2. 14 제7대 보좌 지현배(바오로)신부 부임
 - 6. 12 제8대 보좌 안창호(발다살)신부 부임
 - 8. 18 성체조배실 완공 및 축성식
 - 10. 27 젊은이 성가대 발대식
- 1997.
 - 9. 7 조기축구회 발족식(광안 중학교)
- 1998.
 - 2. 18 제9대 보좌 차공명(프란치스코 살레시오)신부 부임

1999.

- 1. 30 고원일(안드레아)사제 서품
- 1. 30 박근범(레오)사제 서품
- 2. 18 제10대 보좌 곽용승(요셉)신부 부임

2000.

- 1. 28 강지원(토마스 아퀴나스)사제 서품
- 1. 28 방주섭(스테파노)사제 서품
- 1. 27 맹진학(라파엘), 이상일(다두)부제 서품
- 1. 28 제8대 주임 강요안(요한)신부 부임
- 2. 9 함영상(비오) 신부님 은퇴 미사
- 2. 18 제11대 보좌 이강우(클레멘스)신부 부임
- 7. 30 찬미가 책 발간
- 9. 10 성당-종합복지관 사이 길 매수(약 200평)

2001.

- 1. 7 성서 100주간 실시
- 2. 4 맹진학(라파엘), 이상일(다두) 신부 서품
첫미사
- 2. 14 이강우(클레멘스) 신부 이임
제12대 보좌 김영환(로사리오) 신부 부임
- 5. 13 주차장 공사 착수

2002.

- 1. 6 강요안 신부 안식년
수영성당 분가(총 560세대, 1379명)
- 1. 11 제9대 주임 배상복(이냐시오)신부 부임
- 12. 1 상설 재활용 센터(나눔의 장터) 축복식
전신자 성경읽기 시작
- 12. 21 매월 마지막주 친교의 날 시작

2003.

- 1. 9 김영환 로사리오 신부 이임
제13대 보좌 최요섭(요셉) 신부 부임
- 2. 24 지역공동체 모임 시작
- 3. 8 성가정 신심미사(매월 첫 토요일) 시작
- 3. 13 가정 성시간(매월 둘째 목요일) 시작
- 5. 13 수녀원, 사제관, 기도실 기공 축복식
- 6. 15 본당 로고 확정
- 11. 28 수녀원, 사제관 축복식

2004.

- 3. 7 선종기도실 축복식
- 3. 7 청년회실, 포도나무방 축복식
- 3. 28 포도나무방 폐쇄회로 작업
- 5. 16 견진성사
- 11. 4 제대 카페트 교체
- 11. 21 수영성전 건립기금, 8지구 성전부지 기금
전달
- 11. 28 이옥희(히야친파) 수녀 부임
- 12. 16 대림의 밤

2005.

- 1. 13 배상복(이냐시오) 주임신부 이임
최요섭(요셉) 보좌신부 이임
이성균(예로니모) 제 10대 주임신부 부임
조영만(세례자 요한) 제 14대 보좌신부 부임

라. 2006년 본당의 사목방침

2006. 1. 1 천주교 부산교구 망미성당 주임신부 0 0 0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변화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참된 가치를 유지하는 일은 그에 비례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참된 것인가를 되물을여가도 없을 정도입니다.

쉽 없이 재산을 늘여가는 방법을 찾기에 골몰하는 이 시대의 정신은 하늘의 곳간에 바른 행실을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게 만듭니다.

과학적 성과에 열광하며 온 희망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매달리는 이 시대의 정신은 숨을 불어넣으실 뿐 아니라 그 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께 참 희망

의 원천이 있음을 잊게 만듭니다.

나의 좋고 싫음, 이해득실에 따라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관계를 뒤엎는 이 시대의 정신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밀어내고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발생하는 기쁨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게 변화해 왔고 교회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를 언제나 주님께 의지 하면서 항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40주년을 지내고 2006년도를 새로이 맞이하는 망미 공동체도 그러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동체 설립 25주년과 교구 설정 50주년을 함께 맞이할 2007년까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반성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이웃 형제자매를 따스한 눈길로 바라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란 우리 각자를 외로운 이방인으로 남겨두고 저 멀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며 이루어가는 전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나의 한 부분이 외롭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서로를 섬깁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어진 사람, 어진 이웃으로서 어진 공동체를 더욱 빛내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자신의 내적인 반성과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두 가지를 먼저 이루기를 권고합니다.

첫째, 성경 통독입니다. 지난 대림절을 기해 우리는 성경의 새로운 번역본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에 새로이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천은 성경에서 비롯되고 성경을 모르고서는 복음도 기쁨이 될 수 없고 이웃에게 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 담긴 주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온갖 똑똑한 말만 쏟아내며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의 길을 찾고 섬김을 통하여 헌신의 삶을 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디서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읽어가는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삶의 지혜에 다시 도달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신앙서적 읽기입니다. 지난 해 신앙서적 읽기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읽을 여유를 찾지 못하셨던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꾸러미의 신앙서적도 선정하여 읽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체험을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체험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요하게 해줍니다.

올해 우리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본당의 사목자와 평

신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지배적인 모습이라면 이를 지양하고, 더 깊고 원활한 친교와 협력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목협의회의 구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시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의연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여 찾아내고 함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므로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사목계획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짐을 지워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청소년과 노약자들에게 보다 잦은 시선을 두고 기도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하느님의 따스한 눈길 아래서 행복하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마. 본당의 조직과 역할

- 본당에는 주임신부님의 사목을 돕는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있음.
(본당 내 활동 중인 사목위원과 구역장 및 반장, 4개 꾸리아 간부 등으로 구성 됨)
- 이는 조직적인 협조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 친교의 정신으로 교류하면서 본당 공동체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 사목회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나눈 분과와 각종 단체가 유익한 활동과 사업으로 이어짐.

- 사목협의회의 조직을 보면
 - 주임신부님, 보좌신부님, 수녀님
 - 본당 사목회장과 부회장단, 자문위원, 총무단(부총무와 위원)
 - 10개의 분과로 이루어짐.

Ⅱ. 신영세자 교육 (제2주)

1. 교회의 연중 흐름(전례력) 소개 -성인교육분과(차장)-

Q: 전례력이란 ?

A: 그리스도교회의 달력을 말합니다.

Q: 전례란?

A: 교회에서 신자(평신도)들과 성직자가 함께 드리는 공식적인 의식

가. 전례력

연번	구분	내용	용
1	대림시기	○교회력의 시작, 전례주년의 시작인 대림1주부터 12월24일 아침까지가 대림절에 해당함. ○그리스도 '강생' 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재림' 을 준비하는 절기임. ○과거에는 참회와 속죄에 중점을 두었으나 기쁨과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준비하는 기간	
2	성탄시기	○ '성탄대축일' 전야미사로 시작하여 '주의 세례 기념주일' 로 끝남. ○성탄시기는 그리스도 탄생과 공현을 기념하며, 하느님이 인간을 당신 자녀로 삼으시고자 당신 외아들을 보내어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성을 지니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임.	
3	사순시기	○ '재의 수요일' 부터 성목요일 '성유 축성미사' 까지의 40여일을 사순시기라 함. ○그 어느 때 보다 더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파스카 신비를 경축 하는 절기임.	
4	부활성삼일	○성목요일 '주의 만찬 저녁미사' 부터 '부활 성야미사' 에 이르는 이 사흘은 교회력의 핵심으로써 그리스도 신비인 파스카 신비가 거행됨. 그 중 '부활성야' 는 구원의 중심이며 교회의 생명과 성사의 기원과 모든 전례의 원천을 이룸.	
5	부활시기	○부활대축일부터 성령강림대축일 까지를 부활시기라 함. ○특히 그 이름은 부활 제 ○주일로 하여 부활의 연속임을 암시하고, 이 절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나누어 받고서, 신자들의 일치가 데마로 다루어지다가 성령강림에 이르러 절정을 이룸.	
6	연중시기	○부활과 강생의 신비를 특별히 기념하는 시기를 빼놓고 나머지 30여 주일을 연중 제 ○주일 이라 부름. 전체 33주~34주 주일이 해당된다. ○첫째 - 주의 세례 기념축일 ~ 재의 수요일 전날까지 두 번째 - '성령강림대축일' 이튿날 ~ 대림1주전 토요일까지	

나. 전례력과 제의 색상

사제제의는 보통 4가지로 나누어지나, 세분화해서 7가지로 나누어지며, 제의는 전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번	제 의	의 미
1	백색제의	기쁨을 상징한다. 착용 시기는 성탄, 부활 등 수난에 대한 모든축일을 제외한 예수님 모든 축일, 성모님과 관련 축일, 순교자가 아닌 성인 성녀축일에 입는다.
2	홍색제의	피를 상징한다. 예수님 수난성지주일과 성금요일, 성령강림대축일, 성 십자가 현양축일, 순교자축일,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의 축일에 착용한다.
3	녹색제의	희망을 상징한다. 연중시기에 착용한다.
4	자색(보라)제의	참회와 보속을 상징한다.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에 착용한다.
5	장미제의	부활과 성탄을 앞두고 휴식을 취하는 의미로 착용. 부활3주, 대림3주에 착용한다.
6	흑색제의	죽음의 상징으로 장례미사에 착용하나 최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흰색으로 대체되었다.
7	금색제의	성대한 미사를 집전하실 때 / 최근 백색 제의로 착용

다. 수단

라틴어로 ‘달라리스’ 라고 하며 의미는 발목까지 오는 옷

- 로만칼라의 미 - 독신의 정결상징
- 교황의 수단 - 흰색 (세상 빛 상징)
- 추기경 수단 - 진주홍색 (왕권상징)
- 주교 수단 - 분홍색
- 사제수단 - 검정색 (봉사의 삶)

2. 전례분과 안내 - 전례분과장 -

- 본당 내 각종 전례와 관계된 업무를 총괄
- 전례시기별 전례 준비, 전례와 관련된 역할 배분과 교육을 담당
- 미사 전례자 교육 및 전례 진행
- 제대 준비 및 청소 정리, 제대회 관련 지원
- 견진 성사 및 영세식 준비
- 성가대 운영 및 관리, 피정 등

Ⅲ. 신영세자 교육 (제3주)

1. 성소분과 소개 - 성소분과장 -

- 성소 개발을 위한 활동 전개를 총괄
- 중학생을 위한 성소 개발 교육, JA&VA21 교육 지원
- 신학교 지원자 지원 및 성소후원회 관리
- 복사단 관리(어린이 및 성인)
- 예비신학생 관리 및 지원
- 본당 출신 성직자 및 수도자와의 연대 사업
- 본당 거주 사제 부모님, 예비신학생 부모 피정 등
- 예수성심회, 성모회 지원 및 관리
- 복사단 자모회 지원 및 관리
- 동호회(탁구)

2. 청소년분과 소개 - 청소년분과장 -

- 본당 내 청소년을 위한 교리 교육 및 지도를 권장
- 주일학교 교육 및 교사회 지원(각종 교리 교육과 행사, 교육 지원)
- 교사회 관리 및 지도, 교사 교육
- 젊은이 공동체(청년) 관리 및 지도
- 여름 신앙학교 및 피정 등 지원
- 군복무 본당 젊은이들을 관리
- 어린이 첫 영성체 교육
- 주일학교 자모회 관리 및 지원
- 청년회 관리 및 지원

IV. 신영세자 교육 (제4주)

1. 홍보분과 소개 - 홍보분과장 -

- 본당 홍보 및 각종 교육 및 사업 홍보 등 매스미디어 사업을 총괄
- 홈페이지 관리 및 Q&A 게시판 관리 등
- 동호회(망미 디카) 관리
- 본당 내 PC 확인 및 정비 작업
- 홍보분과위원 연수 및 관리
- 본당 내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사진촬영 및 출력, 홍보 활동
- 망미 회보 원고 준비 및 발간
- 신자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 본당 역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진 정리

2. 사회복지분과 소개 - 사회복지분과장 -

- 본당 관할 내 사회복지 활동을 관장
-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실태조사 및 지원활동
- 사회복지분과위원 교육 및 연수
- 불우이웃 돕기 활동 전개
- 헌미헌금운동 지원
- 교구 사회복지와 연대하는 사업 추진
- 본당 연도회와 연계한 장례를 관장
- 성우회 관리 및 지원

V. 신영세자 교육 (제5주)

1. 기획시설분과 소개 - 기획시설분과장 -

- 본당 내 행사 기획 및 준비, 시설 관리 등을 관장하고 관리
- 각종 시설 유지/보수 - 성당 내 시설 보수 유지에 필요한 사항점검
- 월 주차 관리(성당 차량 등)
- 친교의 날 행사 준비 지원
- 본당 대청소 및 계절별 시설 점검
- 본당의 날, 야유회 등 행사 준비 및 지원
- 망미 회보 원고 준비 및 발간
- 나눔의 장터(바자회) 준비 및 지원
- 성탄행사 준비 및 성탄 장식(크리스마스 트리)
- 포도나무회(30대 부부, 자녀들의 가족모임), 누룩회(40대 단체), 반석회(50대) 관리

2. 구역분과 소개 - 구역분과장 -

- 본당 관할 지역을 나누어 지역장 반장 임명하고 지역신자들을 위한 소공동체 운동 총괄 (10개 지역 : 수미, 삼성, 한누리, 실버, 오양, 배산, 한신, 성당, 동명, 연미)
- 환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 세대파악 담당
- 지역 내 반 모임 주관
- 나눔의 장터 상설매장 운영(봉사상품 바자회)
- 반장학교 교육 및 반장 성지순례 또는 피정
- 지역장 및 반장 모임을 통한 교육 및 관리
- 환자 봉사체 협조
- '신앙서적 읽기' 관리

Ⅵ. 신영세자 교육 (제6주)

1. 선교분과 소개 - 선교분과장 -

- 선교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총괄
- 선교분과위원 교육 및 피정 등
- 예비자 입교식 및 관리, 예비자 교리반 협조 등
- 선교활동, 영세식 준비, 예비자 피정 등
- 짝교우, 냉담교우 권면(주보지 및 회두 책자 구입전달), 신영세자 돌보기 등
- 예비자 입교식, 예비자 성지순례 등
- 불우이웃 돕기 활동, 노약자, 독거자, 병자 방문 돌보기 등
- 레지오마리아 지원

2. 본당 내 신심단체 및 활동단체 안내

▣ 신심단체 ▣

- 1) 레지오 마리아(꾸리아) : 4개의 꾸리아 【자비의 모후[제 1021꾸리아], 성자의 어머니[제 1022꾸리아], 성교회의 모후[제 1023꾸리아], 사도들의 모후[제1024꾸리아]】가 있으며, 성모님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 조직 형태의 기도단체
- 2) 연도회 : 장례 및 돌아가신 많은 위령들을 위한 기도 모임
- 3) 예수성심회 : 예수성심을 공경하는 신심모임으로 50대 이상 자매들의 기도 모임
- 4) 성모회 : 성모성심을 공경하는 신심모임으로 40대 이상 자매들의 기도 모임
- 5) 성체조배회 : 거룩한 성체 앞에 조배하여 성체께 대한 신심을 키우는 기도 모임
- 6) 성령기도회 : 성령께 대한 신심을 키우는 기도 모임

▣ 활동단체 ▣

- 1) 울뜨레아 : 교구 교육을 받고 이상, 사랑, 순종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평신도 사도직을 돕는 단체
- 2) ME : 부부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운동으로 부부가 교구의 공식 교육 참가 후,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
- 3) 제 대회 : 제대 준비 및 제단을 꾸미는 자매님들의 모임
- 4) 성가대 : 성가로 주님을 찬양하는 단체
- 5) 복사어머니회 : 어린이 복사단의 부모 모임
- 6) 성인 복사단 : 성인 미사 전례의 복사 및 전례 협조를 담당하는 단체
- 7) 자 모 회 :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의 지원 모임
- 8) 교 사 회 : 주일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 단체
- 9) 삼위일체 축구팀 : 축구를 통한 선교 활동 단체
- 10) 성 우 회 : 60대 이상의 남자 형제들의 모임
- 11) 반 석 회 : 50대 이상의 남자 형제들의 모임

- 12) 누 록 회 : 40대 이상의 남자 형제들의 모임
- 13) 포도나무회 : 30대 전·후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가족 모임
- 14) 청 년 회 : 20대와 30대 전·후 미혼 남녀들의 활동 단체

■ 동호회 ■

순번	동호회	소속	취 지
1	기우회	개인	바둑기력 향상과 친목 도모
2	Wheel (인라인스케이트)	포도나무회	본당 청년 인구의 활성화와 어린이들의 가입으로 성당내 활력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젊은이들의 신앙생활과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함.
3	선소리 (장고, 춤)	구역분과	선(무용)과 소리(장고)로 상호 단합과 친선을 도모하여 생활의 활력소와 리듬을 갖고 아름다움을 창출함.
4	망미 산악회	성인교육분과	동호회 및 가족 중심의 정기적 동반으로 영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성가정의 초석이 되고자 함.
5	통사모	청소년분과	통기타를 통하여 합주, 노래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모임.
6	디카 동호회	홍보분과	디지털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사진과 사람, 자연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7	탁구 동호회	성소분과	동호회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며, 아름다운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
8	낙시 동호회	기획시설분과	가자!, 가자! 자연의 손맛 베풀은 즐겁게 나누면 배가 되는 동호회를 지향함.
9	망달회	재정분과	달리기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며, 아름다운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



B.하느님을 찾아서



망 미 성 당

들어가면서

먼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축하드립니다.

처음 시작되는 신앙생활이 어색하고,
성당 안의 모든 일들이 생소하며,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지 않고,
미사의 의미도
기도의 생활도 힘들음...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후반기 교육을 시작코자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믿음’ 과 ‘삶’ 으로 드러나기에 하느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은총과 부활의 삶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세례 받으심을 축하드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순 서

제1강. 성경 입문	1
제2강. 미사 예절	8
제3강. 내가 만난 하느님	17
제4강.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20
제5강. 믿음을 시작하는 이에게	27
제6강. 본당 현황 및 신자의 의무	35

제1장 성경이란 무엇인가?

1. 성경이란?

■ 가톨릭 대사전 :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과 인류에 대한 자신의 의지에 관하여 계시한 바를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가 작성한 책들의 집합체로서 교회에서 정전으로 인정한 책들.

가.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인간에 대한 구원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내 보이신다.

나. 성경은 하느님의 구원에 대하여 성령의 감도를 받아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

다. 성경은 구약 46권과 신약 27권이나 되는 책들의 집합체이다.

라. 성경은 교회가 정전으로 인정한 책들이다.

2. 성경의 기록

■ 구약성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삶을 통해 계약에 충실하신 하느님과 충실과 배반의 역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글로 기록하였다.

■ 신약성경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으로 완성된 새로운 계약이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고 믿게 하셨으며 사람들이 따르도록 말씀과 행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를 저자들이 기록하였다.

■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각 시대의 역사와 삶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이 먼저 있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은 수많은 세기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글로 기록되었다. 달리 말하면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 오다가 나중에 기록할 필요가 있게 되어 글로 기록된 것이다.

기록의 시기를 살펴보면, 구약성경은 기원전 950년 경 솔로몬 시대부터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다가 기원전 50년에 가서야 지혜서를 끝으로 기록이 끝나게 된다.

신약성경의 기록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20년이 지나서야 글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곧 바울로 사도가 쓴 데살로니카 전서가 50-52년경에 기록되었고, 70년경에 마르코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하여 요한묵시록을 끝으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다.

3. 성경의 정경화(Canon)

가. 구약성경

유대교는 구약성경을 39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나 가톨릭은 46권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이는 희랍 시대에 구약성경이 희랍어로 번역하면서 완성된 것이고, 교회는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46권을 정경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다가 1947년 이스라엘 사해 부근의 쿰란에서 구약성경 46권 전부가 기록된 필사본이 발견됨에 따라 교회의 정경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었다.

개신교는 39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데, 이는 유대교의 정경 목록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참고로, 유대교가 39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데는 그만한 시대적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정당성과 그리스도교의 반대를 위한 목적으로 A.D 95년경에 암니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사도들은 46권 전체를 인용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설교하였다. 특히 부활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제2경전을 들어 얘기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부활 사상은 이스라엘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활 사상은 신명기계의 상선별악 사상에서 선한 사람의 고통 문제, 고통의 의미, 고통의 승화, 육신의 부활 등의 변천으로 발전하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있게 되었다.

나. 신약성경

초대교회 당시는 각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쓰고 보존 하였다. 교회는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이미 사도들의 지도와 교도권의 통솔 하에 있었다. 그러다가 사도들 시대가 지나가면서 말이 지닌 보존의 위험성과 사목적 필요, 전례와 교육 등의 필요에 의해 당시 보편언어인 희랍어(대중적 희랍언어 - 코이네) 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120-150년경에 이미 바울로 사도의 서간들(로마, 고린토 1,2)등이 교부들(클레멘스, 이냐시오, 이레네오 등)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외경이 많아(바르나바 복음, 토마복음, 베드로 복음 등) 그 정전 목록을 채택하는 데 적잖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180년 경 경전 목록이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리옹의 주교 이레네오의 편지), 382년 로마 주교회의에서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 ~ 아무도 구원의 샘인 이 성경들 가운데서 추려 내거나 다른 것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4. 성경의 이해

성경이란 역사 기록물이 아니다.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저자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즉 성경의 주제인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나 소재는 다를 수 있다.

예) 창조설화

- 주제 :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 소재 : 말씀으로 세상과 인간 창조(창세 1,1-2,3a)
 - 사제계 문헌으로 바빌론 유배시기
 - 후으로 인간 창조(창세 2,4,b-25)
 - 야훼계 문헌으로 솔로몬 시대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씌어진 책이지만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씌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더욱 성경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진다. 성경의 배경 지역인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의 폭넓은 이해가 수반되면 좋겠다. 또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희랍어 등을 알면 더 좋겠다. 나아가 문화적, 지리적 배경 등을 안다면 더욱 좋겠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하지만 인간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그 나약함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당신의 구원의 말씀을 건네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의 사고방식, 표현방법, 문체 등이 말씀과 더불어 배어있다.

예)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마르 4,1-9)

이스라엘의 경작법과 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쉽다.

■ 이스라엘의 우기와 강수량은 10월-다음해 3월 정도까지로 연평균 강수량이 700 ~1,000mm 밖에 안 되었다. 나머지 달에는 자연스레 길이 말라 우기가 오기 전에 말라버린 밭에 씨를 뿌리고난 뒤 비를 맞고 밭을 갈아 씨가 뿌리내리는 경작법이다.

유대인들의 전통(마르 7,1-23)

유대인들의 정결예식을 알아야 이해가 쉽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믿음(마르 7,24-30)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위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사고를 이해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의 가르침과 교도권의 해석에 의해 공부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 말씀 안에서 신학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화를 통해 쉽게 이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재미있는 역사 스페셜 같기도 하

는가 하면, 어느 때는 윤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자구적 해석을 금하고 있다.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데 있어 성령의 도움을 청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유명한 교부이시며 성경학자이신 성 예로니모는 “성경을 모르면 예수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을 알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예비신자이든지 아주 오래된 신자이든지, 또 열심히 신자이든지 덜 열심히 신자이든지, 성숙한 신자이든지 미성숙한 신자이든지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토대가 되며 교회 생활의 밑바탕이 된다.

5. 성경과 성전

가톨릭 교회는 성경 외에도 중요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 있다. 이를 성전이라 한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 하신 일들을 낱알이 다 기록하자면 기록한 책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요한 21, 25)

그러면 성경이 다 기록하지 못한 하느님 말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는 초기부터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진리가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의 하나인 계시현장에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며, 성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하느님의 말씀이다.” (계시현장 9항)

곧 성경을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고, 성전은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은 하느님의 계시와 말씀이 말로써 전해져 내려온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전은 같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또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경배하고 가르치며 신앙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 사도신경, 기본적인 전례 형식, 보편공의회들의 문헌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이 성전(聖傳)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 사실 전해진 사실이나 말들에 대한 이해는 (...)깊어 간다. 교회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세기를 통하여 항상 천상 진리의 충만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계시현장」 8항 ; 교리서 77-79, 2650-2651)

6. 성경의 구분과 장, 절 표시

가. 성경의 구분

성경의 구분에는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고, 구약 46권, 신약 27권, 총 73 권으로 되어 있다.

■ 신약성경 : 복음서 4(공관복음과 요한 복음), 사도행전 1, 가톨릭 서간 5, 바울로 서간 14, 요한계 문헌(요한의 편지와 묵시록)으로 구분한다.

■ 구약성경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분류가 다르다.

■ 유다교 :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24권)

- 모세오경5권

- 예언서8권(전기 - 여호, 판관, 사무, 열왕

후기 - 이사, 예레, 소예언12, 예제)

- 성문서11권(그 밖의 책들 - 시편, 잠언, 율기, 전도, 아가, 룻기,

애가, 예즈, 느헤, 1,2역대, 다니, 에스)

■ 그리스도교 ;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서와 지혜서로 분류

(39 권 또는 46권)

- 모세오경 5권,

- 역사서 12권(여호, 판관, 룻기, 1.2사무, 1.2열왕, 1.2역대, 예즈, 느헤, 에스)

- 예언서 17권(이사, 예레, 애가, 예제, 다니, 12소예언서)

- 시서 5권(율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 제2경전 7권(토비, 유딧, 지혜, 집회, 바룩, 1.2마카)

[가톨릭은 시서와 제2경전을 시서와 지혜서로 다시 구분한다.]

나. 성경의 장, 절 표시

처음부터 지금의 장, 절이 표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13세기경 캔터베리의 대주교 랭턴이 장을 구분했다는 설도 있고, 카로의 후고 후기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이후 1558년경 인쇄업자인 에티엔느가 절을 표시하여 지금의 장 절 구분을 하게 되었다. 성서의 장, 절은 내용을 쉽게 찾고 실용적인 용이함을 위해 구분되었던 것이다.

7. 성경을 읽을 때의 자세

- (1) 성령을 청하고 기도하면서 읽는다.
- (2) 향구함을 가지고 꾸준히 읽는다.
- (3) 정신을 집중하여 읽는다.
- (4) 겸손한 태도로 읽는다.
- (5)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결심을 한다.

8. 이야기로 살펴보는 성경의 역사

기원전

- | | |
|--------|---|
| 1850년경 | 아브라함을 부르심
성조시대 |
| 1700년경 | 에집트 이주(야곱의 아들 요셉에 의해) |
| 1250년경 | 에집트 탈출
시나이 계약 “나는 너희의 하느님, 너희는 나의 백성”
계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탄생 1200년경 판관시대 |
| 1000년경 | 다윗시대
12부족 통일, 예루살렘에 계약의 궤 안치,
나단의 예언 “네 왕조는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리라.” |
| 970년경 | 솔로몬시대 - 성전 건축
성서가 글로 기록되기 시작 |
| 930년경 | 남북의 분열(남부 유다, 북부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활약
■ 북 :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 남 :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성서 : 엘로힘계, 신명기계 |
| 721년경 |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아시리아에 의해) |
| 620년경 | 요시아(640-607)의 종교개혁 |
| 587년경 | 남부 유다 멸망(바빌론에 의해) |

	예언자 : 에제키엘, 제2이사야
538년경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건축 에즈라와 느헤미야
450년경	구약성서 모세오경과 예언서 집대성 유대교 탄생 - 에즈라
333년경	희랍 통일 왕국(알렉산더 대왕) 언어 통일로 정신적 통일 - 코이네 언어 헬레니즘 문화 형성 - 사상적 통일 디아스포라 유대인 - 해외 모든 유대 공동체 형성,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공동체로 유명함. 이들을 위한 히브리어 구약성서 - 희랍어 번역작업 (70인역 성서) 마카베오가의 독립투쟁
63년경	로마 제국 예루살렘 점령 도로 건설
기원 후	
6년경	예수그리스도 탄생
30년경	예수그리스도의 공생활과 죽음, 부활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의 복음 전파 [통일 언어인 희랍어와 로마제국의 도로 사업은 사도들이 박해를 피해 복음을 전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49년경	바울로의 1차 전도여행, 사도회의
52년경	데살로니카 전서 집필
50-58년	바울로의 2,3차 전도여행(각종 서간 집필)
66년경	베드로, 바울로 사도 순교
70년경	예루살렘 성전 파괴 - 이스라엘의 멸망

마르코 복음 집필

80-90년경 마태오, 루가 집필

95년경 요한계 문헌 집필

125년경 베드로 2서 집필

180년경 교부들에 의해 성서 정경화 시작

9. 성경을 통해 만난 하느님 체험 나눔

- 성경 안에 드러난 구세사 : 인간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통찰력에 눈뜸)
- 일상 속의 하느님 :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 내 삶의 중심인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끌어준 성경
(복음적 생활 - 분별과 묵상, 삶의 양식, 하느님과의 만남)

제2강 미사 예절

I. 성당에서는 이렇게

1. 성당(聖堂)에 도착하면

· 신자들은 성당에 도착하면 성당에 모셔져 있는 성모상(聖母像)에 잠시 발을 멈추고 예를 갖추어 묵례한다(기본 예의임).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웃어른께 인사를 하거나, 남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그 댁의 어른들께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성당 주변에서는 잡담이나 흡연을 삼가며, 적어도 미사 시작 15분 전에 성당에 들어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묵상(默想)하고 온전히 미사를 사제와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2. 성당 안에 들어가면

· 성당은 하느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에 들어서면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한다. 신자들은 성당을 들어서면 성수반의 성수(聖水)를 손으로 짚어 성호경을 그으며 “주님, 이 성수로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항상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고 기도한다.

· 성당 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곳은 제대와 감실이다. 감실에는 예수님께서 성체의 형상으로 현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을 흠송하는 마음과 경건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저버리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에 유념한다.

- (1) 신자는 먼저 제대와 감실을 향해 인사한다.
- (2) 성당 안에서는 뛰거나, 걸을 때에 뒷짐을 지거나, 발소리를 내지 않도록 한다.
- (3) 성당 안에서는 잡다한 소리나 큰 목소리로 고요한 분위기를 흐려놓아서 안된다.
- (4) 여성신자들은 미사 중에 미사보를 사용한다.
- (5) 미사 예절 중에는 서고, 앉고, 무릎을 꿇는 자세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 각각에는 그 의미가 있다.

가. 서는 자세의 의미와 시기

- ▶ 존경의 표시, 부활의 기쁨을 드러내는 자세
- ▶ 사제의 입장 때부터 본기도를 마칠 때까지,
‘알렐루야’ 부터 ‘보편 지향 기도’ (신자들의 기도)까지,

‘예물 기도’ 전부터 ‘거룩하시도다’ 까지,
 ‘주님의 기도’ 부터 ‘하느님의 어린양’ 을 마칠 때까지,
 ‘영성체 후 기도’ 부터 사제의 퇴장까지

나. 앉는 자세의 의미와 시기

- ▶ 주의를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듣기 위할 때 취하는 자세
- ▶ ‘제1독서’ 부터 ‘알렐루야’ 전까지,
 ‘보편 지향 기도’ 후부터 ‘예물 기도’ 전까지,
 ‘영성체 후’ 사제가 성체를 감실 안에 넣은 다음부터 ‘영성체 후 기도’ 전까지

다. 꿇는 자세의 의미와 시기

- ▶ 어떤 것을 구하는 겸손의 몸짓으로 인간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세
- ▶ 미사 후 개인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바칠 때 등
- ▶ 미사 중에는 꿇는 자세를 취하지 않기도 한다.

- (6) 미사 중 이동시(성체를 영할 때, 봉헌 때 등)와 기도 때에는 반드시 합장을 한다.
- (7) ‘하느님의 어린양...’ 에서 모든 신자들은 사제가 들어 올린 성체를 바라본다. - 성체를 바라보면서 흠송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이시오 내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고백한다.
- (8) 성체를 받아 모실 때에는 엄숙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하고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영(領)하도록 한다.
- (9) 성체를 영한 후 장궤(무릎을 꿇는 자세)하였을 때에는 성체 분배를 끝낸 사제가 남은 성체를 감실에 모신 후 감실 문을 닫고 돌아설 때 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
- (10) 성체를 모시기 전 한 시간 가량의 ‘공백제’ 를 지킨다.
- (11) 미사는 사제의 입장에서부터 퇴장까지 참석할 때 완전하게 참석한 것이 된다.
- (12) 퇴장 성가가 끝나기 전에는 미사가 진행 중이므로 퇴장 성가 이후, 그리고 신심기도가 끝난 후 퇴장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다.
- (13) 성당에 올 때에는 경망스러운 신발, 복장의 착용을 삼가한다.
- (14) 퇴장 때에는 성수를 찍어 성호를 긋지 않는다.
- (15) 입당하여 자리에 앉을 때에는 앞에서부터 앉는다.
- (16) 사용한 주보는 잘 정돈하여 둔다. - 가정으로 가져가 전교용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다.
- (17) 성당 안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하느님께 대

한 품위와 예절을 갖춘다(다리를 꼬거나 장궤틀에 발을 얹지 말며, 신을 벗고 있지 않는다).

(18) 성당에서 서로 상대방을 호칭할 때는 세례명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모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에페 2,19).

II. 미사란 무엇인가?

1. 미사의 어원

- 미사(Missa)라는 말은 라틴어 ‘Mittere(보내다, 파견하다)’에서 유래된 말임.
- 신약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바치는 미사와 똑같은 전례를 가리켜 “주의 만찬, 빵 나눔, 아가페” 등으로 표현하였음.
- 이러한 명칭이 세월이 흐르면서 라틴어 미사 경문 “Ite miss(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음.

2. 미사의 의미

- 미사는 천주교의 거룩한 제사이며 성찬의 잔치임.
- 인간이 신께 봉헌할 가장 귀한 봉헌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귀한 생명 그 자체일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 의식을 보면 종종 살아 있는 인간을 신께 바치는 제사 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어서 어느 곳에 정착하든지 제일 먼저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봉헌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생명 대신에 흠 없는 염소나 양 등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제사를 드렸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의 생사권을 가진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합당한 제물에 인간 생명을 전가하여 야훼께 희생 제물을 봉헌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첫째 하느님의 절대성을 최대한로 받들기 위함이고,

둘째 하느님께 받은 생명과 구원의 무한한 은혜를 감사하기 위함이고,

셋째 하느님께 잘못과 죄를 범했을 때 용서와 속죄의 제사를 올리기 위함이고,

넷째 우리가 행복하고 생의 의의를 찾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제사의 의미는 천주교회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미사성제의 의미이기도 하다.

3. 미사의 구성

구 분	내 용
시 작 예 식	입당, 사제의 인사, 참회 예절, 자비송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대영광송, 모음기도
말씀의 전례	독서, 화답송, 복음, 강론, 신앙고백, 보편기도
성찬의 전례	예물 준비, 감사기도, 성찬식
마 침 예 식	사제의 강복, 마지막 인사와 파견

4.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1) 공동체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미사 봉헌은 집전 사제와 신자들 사이의 대화와 응답이 중요하다. 따라서 동작을 함께하고, 성가를 함께하며,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몸을 나눈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2) 말씀의 전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참례하며 성서나 「매일미사 책」을 가지고 성당에 간다.

(3) 헌금(獻金)을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

헌금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참된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성을 모은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과 정성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성되어 준비한 헌금은 정성껏 자신을 준비한 것이 되며, 미리 가정에서 준비해 온 헌금은 하느님 대전(大殿)에 더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것이다.

(4) 영성체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하느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을 아무런 준비없이 참여 한다면 하느님께 결례(缺禮)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혼의 준비	마음의 준비	육신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죄 : 미사 전 고해 성사를 봄. • 소죄 : 미사 참회시간에 주님께 겸손되어 용서를 청함 	하느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향주삼덕(向主三德 : 믿음, 희망, 사랑)의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	영성체 한 시간 전에 ‘공복제’를 지킴(식수와 약 등은 제외)

Ⅲ. 미사예식(미사예절)

1. 시작예식

① 입당송(入堂誦)(선다)

- ▶ 사제가 제단으로 나오므로써 미사가 시작된다.
(이때 전 신자는 성가대와 함께 입당성가를 부른다.)

② 십자성호(또는 성호)

- ▶ 사제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표지인 십자 성호를 긋고 사제는 이 집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사로써 표시하며, 이 인사와 신자들의 응답으로써 교회 집회의 신비를 드러낸다.
- ▶ 자신이 신자임을 드러내면서 성부·성자·성령(천주성삼)을 부르는 기도이다. 신앙의 외적 표시이다.

③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 이 인사말은 그리스도의 생활 전부를 요약한 것으로 히브리말 ‘임마누엘’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임.

④ 참회

- ▶ 사제는 우리 모두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도록 권고한다(마태 5, 23-24).

⑤ 자비송

- ▶ 이 기도는 짝막하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성부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령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다.

⑥ 대영광송

- ▶ 성삼위 하느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찬송시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부르던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시)
- ▶ 가장 오래된 기쁨에 넘친 기도이다.
- ▶ 대림시기와 사순시기를 제외한 모든 주일, 대축일, 축일 및 지역의 성대한 축제에 서서 부른다.

⑦ 본기도

- ▶ 미사 중에 바치는 첫 번째 기도
- ▶ 이 때 사제는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는데 이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장엄한 기도의 자세로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신앙의 표시이다 (개회식 끝맺음) - 앉는다.

2. 말씀의 전례

① 독서

- ▶ 옛날 유대인들의 경신례의 관습에서 온 것임
- ▶ 제1독서(보통 구약성서의 내용을 담고 있음)와

제2독서(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성서)를 봉독함.

- ▶ 봉독 내용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경신례란?

경신례란 말은 인간이 하느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외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 즉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일반적 기도 행위나 성사 및 준성사 같은 전례 행위는 경신례에 속한다. 특히 ‘기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경신례라고 할 수 있다.

② 화답송(1독서 후)

- ▶ 제1독서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노래
- ▶ 수천 년간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희·노·애·락을 노래한 시편으로 되어 있다.
- ▶ 내용은 교훈적이며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노래이다.

③ 알렐루야(선다)

- ▶ 히브리말로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뜻
- ▶ 알렐루야는 마음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으로 신자들은 이 노래를 통해 복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
- ▶ 사순시기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는 시기이므로 ‘알렐루야’ 대신 괄호 안의 양식 가운데 하나를 한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④ 복음

- ▶ 말씀전례의 가장 중심을 이룸
- ▶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인 가르침과 행적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선다.
- ▶ 사제의 복음 낭독은 복음 선포이기에 신자는 성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복음 선포에 정성껏 귀 기울여야 한다.

⑤ 강론(앉는다)

- ▶ 사제는 강론을 통해 방금 선포된 복음이 우리 생활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등에 대한 복음의 의미를 선포한다.
- ▶ 신자는 강론을 통해 자신의 생활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생활이 되도록 결심하고,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를 깨달아 가도록 해야 한다.

⑥ 신앙 고백 (선다)

▶ 우리가 영세할 때 처음으로 약속하고 서약한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복음 말씀에의 성실한 순종과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니체아 신경과 사도 신경 두 가지가 있다.

⑦ 보편 지향 기도(신자들의 기도)

▶ 미사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에게 관련된 보편적인 기도.

봉헌물이 제물이 되는 까닭

미사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일 뿐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제이다. 따라서 사제는 성찬의 전례 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 하느님께 봉헌하므로 우리가 바친 봉헌물은 제단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빵과 포도주는 신자들의 노력과 수고의 결실이기에 신자들의 제물도 되는 것이다.

③ 포도주에 물을 섞음

▶ 그리스도의 봉헌이 포도주라면 우리의 봉헌은 조금 섞는 물이다. 즉 우리의 봉헌을 그리스도의 봉헌에 합쳐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을 나타낸다.

④ 손 씻음 - 정확을 상징

⑤ 밀떡봉헌 - 사제

거양 성체 (높이 들어 올린다.)

⑥ 포도주 봉헌 - 사제

⑥ 봉헌기도

▶ 사제는 하느님께서 제물을 받아 주시고 제사를 봉헌하는 사람 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과 성변화에 대한 은혜를 간구한다.

⑦ 감사송(거룩하시도다)

▶ (이사 6, 3)의 천사의 찬미 노래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하실 때에 빨마(종려 나뭇가지)와 올리브 가지를 들고 환영하던 환호 소리(마태 21, 9)로 엮어져 있다.

- 이는 축일에 따라 다르다.

(예 : 부활대축일, 성탄대축일, 성요셉축일 등등)

⑧ 거룩한 변화(성변화)

▶ 밀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마르 14, 22-24)

▶ 거양성체(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신자들에게 흠숭과 존경을 드리게 하기 위함임)를 한다.

⑨ 신앙의 신비

▶ 거룩한 변화로써 이루어진 성체와 성혈,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존

경심과 경외심에서 나온 환성이다. 이는 성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현존하여 계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 이 말은 성찬 안에서 신앙의 모든 신비가 구체화 되었으니 우리도 그 일에 일치할 것을 결심하라는 것이다.

⑩ 주님의 기도(선다)

▶ 이때부터 성찬식이 시작된다.

⑪ 평화의 인사

▶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이다.

▶ 의미 : 우리는 영성체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며, 같은 성체를 받아 모시는 형제, 자매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형제·자매들에게 복을 빌어 주고 일치를 꾀하는 것이 평화의 인사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

⑫ 빵 나눔

▶ 의미

첫째,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재현하는 것

둘째, 초대교회 신자들이 서로 빵을 나누어 먹었듯이 신자간의 일치와 나눔을 표시

셋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처참한 죽음을 상징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때 갈라졌던 영혼과 육신, 거룩한 피를 상징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빵 나눔’ 은 초대 교회 안에서는 감사의 제사, 즉 미사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었음)

⑬ 성체를 성혈에 혼합

▶ 신자들이 “하느님의 어린양...” 을 할 때 사제는 빵을 둘로 나누어 그 한 쪽에서 다시 조각을 내어 성작 안에 넣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다시 결합하여 부활하심을 의미하며, 이 뜻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잠시 뿐이고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 속에서 신자들은 잔치를 계속하는 것이다.

⑭ 하느님의 어린양

▶ 이는 구약시대 하느님의 백성이 어린양의 피로써 이집트에서 구원된 것 같이 신약의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해 내신 하느님의 어린양인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노래하는 것이다.

▶ 신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성체와 성혈을 믿음, 소망, 사랑의 간절한 마음과 감사의 정으로 받아 모셔야 한다.

⑮ 영성체송(앉는다)

▶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는 동안 부르는 노래

▶ 미사의 신비를 나타내고 예수께서 최후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동산으로 가시며 시편을 읊으신 것에서 유래

⑯ 신자들의 영성체

- ▶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받아 모신다.
 【♥ 아멘 - 일치로 나타내며 “예, 저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모심으로
 써 그분의 몸인 교회와 건설과 일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하느
 님과의 약속의 행위】
- ▶ 신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분과의 일치감
 을 맛보게 된다. 성체 성가가 계속되는 동안 성체를 모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
 와 그 감동을 느끼며, 영성체 후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를 바친다.

⑰ 영성체후의 기도

- ▶ 사제는 대표로 영성체에 대한 감사와 받은 은혜를 언제나 우리에게 머물
 게 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이로써 가장 중요한 성찬전례 예식을 끝맺는다.

4. 마침 예식

① 사제의 강복(축복)

- ▶ 사제는 하느님께서 감복하시기를 기원한다.
- ▶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신 것을
 연상케 한다.

② 파견

- ▶ 사제는 전례의 모임이 끝났으므로 모임을 해산하는 성삼의 예식으로 신자
 들을 축복한 후 가서 복음을 선포하자는 말로 신자들을 세상에 파견한다.
- ▶ 그리스도 신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이웃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힘껏 전
 해야 한다.

③ 마침성가 (파견성가)

제3장 내가 만난 하느님

1986년 9월 “파아란 풀밭에 이몸 누어 주시고 ~” 성가 번

아직도 내겐 귀에 생생하다. 그날은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게 무언지도 잘 모르고 세례성사가 내겐 새 삶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세례의 은총을 입게 됐다.

난 성격이 완벽주의자이며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며 내주장도 아주 강한 편이다.

그러기에 영세를 하고난 뒤, 원죄와 본죄를 다 씻어진 세례의 은총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말자고 생각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고 보속할게 있다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또한 이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가를 생각하게 됐다

먼저, 하느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했고 그 확신이 생기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 하게 했다. 먼저 하느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도가 뭘 지도 모르는 나는 신자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들에게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원했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다.

혼자 바오로서원을 찾아가 김보록 신부님의 “묵주기도의 신비” 라는 책을 샀다. 그 책을 통해 묵주기도는 염경기도이며 묵상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고통을 연결시켜 묵상하게 함으로서 성모님을 고통과 삶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묵주기도로 성모님께 청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도 되었다

그다음 나의 바람은 가정의 성화였다. 어쩌면 나는 예비자 기간을 오래 지냈는지 모른다. 23살에 불교집안에 시집와서 10년 넘게 이조시대의 시어머니 시집을 살면서 처녀적에 영세식날 도망쳤던 성당을 가고 싶다는 열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딸의 같은 반 엄마가 교리반을 소개했다. 6개월간의 교리반을 다니면서 평일미사에도 빠짐없이 다녔다 그리고 나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님의 어리석음이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는지 대한 궁금증과 미사 중에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의문점을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

고 싶었지만 의문점을 해결해지지 않았다. 그때 수녀님이 내게 성서공부를 권유했고 창세기와 탈출기, 마르코복음, 요한 복음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기쁨은 내가 여태까지 느껴 보지 못했던 새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가정의 성화가 나의 목표가 되었다.

남편은 내가 영세한 후 얼마 지난 뒤 자연스럽게 성당에 미사를 따라 나오면서 교리반에 다니게 되었고 아이들은 유아세례 및 첫 영성체 교리를 받아 아침 저녁기도를 함께 바치고 가끔씩 묵주기도도 바치며 삶의 새로움을 만끽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만의 이 기쁨을 하느님께 드리고 싶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중 지금 로사 복지회관에 버려진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작은 등지” 라는 곳에서 매주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고 1주일에 한번 시장을 봐서 점심을 해드리기도 했다. 봉사를 통해 자신이 뿌듯함도 느꼈지만 결정적인 것은 내가 봉사한 것이 아니라 받는 기쁨이 더 컸으므로 오히려 봉사를 받은 기분이었다.

봉사에 신바람이 난 나는 동향성당 옆에 있던 사랑의 선교회에 버려진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뒷바라지도 해주며 내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키워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살고 있던 현 아파트를 새집으로 단장한 후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던 우리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촛불을 켜놓고 놀다가 그냥 나와 버려 아파트에 불이 났다. 집안의 온 재산은 송두리째 쓰레기가 되었고 쓰레기차에 몇차를 실어 보내며 물질에 연연해 하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며 하느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버릴 수 없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보게 됐다. 물질을 잃어서 힘든 것 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고 다녔고 생각지도 못하던 소문에 무척 힘들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변명하지 않고 주님께 봉헌하기로 작정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이 인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주님의 은총으로 견뎌 낸 듯하다.

세상을 사는 동안 어찌 쉬운 일만 있을까?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던 나는 주님이 계신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왜 나는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은 침묵 중에 계셨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방법으로 답변해 주실 때도 많았다.

그걸 알아채기까지에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나의 삶속에 내게 주신 큰 시련은 남편의 죽음이다. 우리 부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하느님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했으며 모든 삶을 그분의 뜻대로 살려 노력했는데 왜 하느님은 데려 가셔야 했는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어렵פות이 내가 깨달은 것은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셨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며 현실을 즉시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어려움 속에서 알게 되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순금도 불 속에서 단련을 받아 불순물을 제거하듯 우리도 신앙 안에 단련되어 더욱더 빛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단련을 결코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고통 중에 언제나 하느님은 함께 계셨다. 침묵으로 때로는 회오리바람으로 때로는 미풍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도 하지만 채찍으로 호되게 꾸중하실 때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나약한 인간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 향하고 있는지 세상에 매여 있는지. 자주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라 하겠다. 마음을 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느님께 의탁하고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듯하다.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분들께 주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자주 그분을 만나도록 바라고 싶다.

평일미사, 성체조배, 묵주기도, 성서공부 각종 신심교육 등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찾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또한 작은 결심도 필요하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생활의 시간표도 마련해 보자. 아침, 저녁 기도를 빠뜨리지 않기를.... 그리고 최소한 묵주기도 5단 만큼은 하루에 바치도록 노력해 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를 긋고 오늘하루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들, 어려움과 힘듦, 이 모든 것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그분께 바쳐드린다는 봉헌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고 저녁 잠자기 전 하루의 생활을 주마등처럼 볼 수 있도록 침묵의 시간도 가져보자.

처음엔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작은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세를 받고 새로 태어난 모든 이들이 하느님 안에 행복하길 기도한다.

제4강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1. 시작기도와 인사 / 친교와 마음연기

2. 십자가 바라보면서

① 노래 CD/TAPE (생활성가 가수 유승훈)

=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타인)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자신)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나만 이렇듯 힘드냐고 때론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자신)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계신 십자가(예수님) 바라보면서
수난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자신)가 내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② 십자가의 형상은?

③ 각자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④ 그릇이야기

= 크기를 키우십시오.

=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시’ 하나 : 작은 그릇 / 김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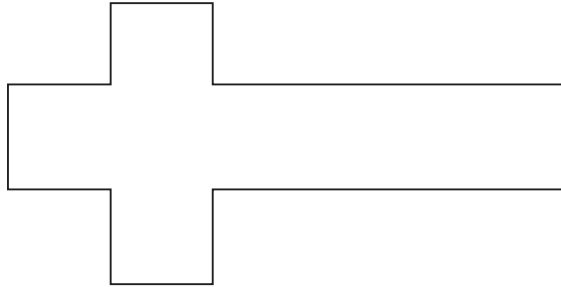
더도 채우지 말고
덜도 채우지 말고
넘치지 않고 늘 차 있기를 원하지만
종지에 뚝배기를 붓고 넘친다 하고
뚝배기에 종지를 붓고 모자란다 한다
채운 것이 이것이고
애출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면
그대로 만족하면 좋으련만

더도 덜도 아닌 것이
 더 달라고 모자란다 한다
 아니 넘친다 한다

④ 십자가의 무게와 양 : KG단위
 = 예수님 : KG / 타인 : KG / 자신 : KG

☞ 크기의 기호를 그려 넣어 봅시다. (<<, =, >>)
 예수님 자신 타인 ==> 어느 방향입니까?

⑤ 자기의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 안에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짐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록 하십시오.



⑥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은?
 개인과 공동체로 구분하여 기록한 뒤,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개 인	공 동 체

⑦ ‘십자가’ 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듯이 노래를 들어봅시다.
 =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테이프의 노래를 들어도 좋다.

- ⑧ 자신의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거나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들면 자신의 십자가 그림에 친구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맞춤하십시오.

3. 십자가의 3가지 의미

- ① 깨어 있으라!
- ② 회개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 ③ 더하기의 삶, 성장하는 삶을 원하심

4. 대림시기 대림환(4주) / 사순시기 사순환(7주)

= 말씀뽑기(십자가상 7가지 말씀)

【십자가상 7가지 말씀】

- 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 ②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③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 ④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 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⑥ 목마르다
- ⑦ 이제 다 이루었다.

▶ ‘시’ 둘 :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 김종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혈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이 세상에서 가져가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이며,

내가 나에게 매질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가려진 눈과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내가 “아버지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은
내가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고
그분 안에 너희를 맡기기 위해서이다.

내가 “나의 어머니를 너희의 어머니가 되게” 한 것은
나를 통해 새로운 어머니와 형제를 맞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기 바램이며,

내가 죄인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더욱 매달리는 것이며.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은
마셔도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물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고개 떨어뜨리며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이유가 이제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태어난 이유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바라기 때문이다.

무덤에 누워서 다시 말씀하신다.
그래, 우리 삼일 후에 만나자꾸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우리 만나 지난날을 이야기 하자꾸나.
너와 나의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2006년 3월, 사순절에)

5. 상처의 원인

: 십자가가 무거운 까닭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

▶ ‘시’ 셋 : 내 마음 같아 / 김종대

내 마음 같은 사람 없을 거라 알면서도
내 마음 같은 사람 만나기를 기대하며 살다
내 마음은 상처를 입고
내 마음 가는대로 되는 세상없을 거라 알면서도

내 마음 가는대로 살아보자 다짐하며 살아가다
내 마음 갈 곳을 잃고
내 마음 둘 곳 없을 거라 알면서도
내 마음 둘 곳 찾아 그리 헤매고
멀지 않은 곳에 내 마음 둘 곳 있어도
언제나 멀리 바라보는 눈은
마음보다 멀리 달아나고
내 마음 있는 곳에 그도, 세상도 있을 법한데
다시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알면서도
아직도 욕심내고 사는 걸 보면
그도 세상도 내 마음 같은가 보다.

6.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십자가를 향한 돌팔매질

▶ ‘시’ 넷 : 돌 팔매질 / 김종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주변엔 던질 돌도 많고
맞을 사람도 많다.
던질 사람 필요한데
죄 없는 자 던지면 좋으련만
던질 사람 어디 있어
그저 답답한 예수는
쫓그려 앉아 낙서를 하고 있다.
에워싼 이들의 눈에 든
티끌과 대들보를 뽑아 던지나
아님 돌 맞을 사람 가슴에
모질게 박힌 돌 뽑아 던지나

“그래 차라리 죄 있는 자,
그대가 돌 던지게”

사람들은 하나 돌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 버렸다.

7. 그분이 홀로서 가시지 않도록

【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영화) 】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홀로서 가신 그분의 길, 홀로 가시지 않도록...”

8. 우리의 소망을 노래한다.

① 십자가의 못과 지우개 이야기

② 소망 : 우리의 소망을 노래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 노래 CD/TAPE

= 아픔을 잊고자 하는 이에게 기쁨 가득하길 원하며
슬픔을 잊고자 하는 이에게 누군가 함께하길 원하네
마음 아픈 이와 함께 사랑 나누면 누군가 기쁨 주리니
슬픔을 잊고자 하는 이의 맘 함께 나누리
아픔을 잊고자 하는 이에게 기쁨 가득하길 원하며
슬픔을 잊고자 하는 이에게 누군가 함께하길 원하네

③ 함께 하십시오.

- 로마서 12. 12

♥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 로마서 12. 15

♥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 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

- 고린토 2서 7. 9

♥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쁘다는 말입니다.”

- 고린토 2서 8. 2

♥ “그들은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희사를 했습니다.”

- 야고보서 1. 2

♥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④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

9. 마침기도

♡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

당신의 그 크신 고통,

저희를 위하여 내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이 이 사순시기를 보내며

당신의 십자가와 저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홀로서 가신 그분의 길, 홀로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귀를 열고 듣고 또 알아들으며,

눈을 떠서 보고 또 알아보아 (이사야 6.9-10)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부활의 기쁨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 으로 살아

저희의 이웃들이 저희를 보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5장 믿음을 시작하는 이에게

† 시작기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테살로니카 5, 16-18).

1.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 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좋은 모습’ 을 보고
 - 나.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정리하고 편하기를 바라며
 - 다. 신앙으로 찾게 되는 하느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 라. 그밖에 이웃의 권유, 호기심 등등
-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로부터 선택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2. 신앙이 주는 가치

- 세례를 통하여 얻은 신앙은 고통을 없애주기 보다 고통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 신앙은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세상을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눈을 준다.
-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내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된다.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상처 받은 마음이 안정을 얻게 되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상처가 낮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도의 차이와, 자신이 느끼는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 고통 없이 사는 것은 천사일 뿐이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신변에 당장 무슨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이나 삶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고통스럽게 또는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고, 힘들지만 감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느 한계까지는 참다가도 결국은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게 된다.

종종 신앙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의 부족으로 인해 얼마 안가서 냉담하는 경

우가 있다. 우리 모두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세례의 가치를 깨달아 의미 있는 삶(부활)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어떻게 하면 냉담하지 않고 빨리 바른 신자가 될 수 있겠는가? ★

- 1) 다른 여러 일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2) 주일 미사를 빠지지 말아야 한다.
- 3) 미사는 어느 성당에서 보아도 무난하겠으나 가능한 본당 공동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다.
- 4) 성당에 오면 모든 것을 챙겨 주던 예비자 교리 때와는 달리, 세례를 받고 나면 “왜 이럴까?” 할 정도로 이방인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 신앙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모임으로는 소공동체 모임과 레지오 활동 등이 있다.
- 5) 시간이 다소 지나면 성경과 강론말씀 등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고, 기도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해지며, 신앙생활과 믿음도 배우고 키워나가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이때쯤이면 기쁜 마음으로 성당에 나오게 된다.

- 남에게는, 상처를 받아 미워하던 마음에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일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그를 용서하자는 마음이 생김

↓↓↓↓

- 편안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상처 받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소외된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삶을 살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됨

↓↓↓↓

-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됨

↓↓↓↓

- 자연스럽게 집안이 편안해지고,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관된 모든 것에 감사함과 대자연의 신비에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것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더욱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됨

- 6)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렇게 자신의 힘이 부치거나 잘 되지 않을 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한다.

3. 도움을 청하는 방법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며,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길은 “기도”와 “말씀 ‘에 있다.

가. 기도의 정의

- ① 기도는 읊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마음을 비우고 머무르는 것이다.
- ② 하느님과 대화이며 하느님의 시각으로 나. 너.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창세기 : 보시니 좋더라...)
- ③ 마음으로 듣는 기도가 (쉐마! 이스라엘) 필요하다.

나. 기도의 필요성

- ① 내 본모습을 찾기 위해서(가장 중요한 것을 “나”의 존재이다. 그다음에 하느님의 존재가 인정된다)
- ② 성체조배는 가장 좋은 기도이며 염경기도의 중요한 첫 관문이다.

다. 기도의 종류

- ① 소리기도 · 묵상기도 · 염경기도(머무르는기도)
 ❖묵상기도의 기본은 주의 기도(가장 완벽한 기도)와 묵주기도이다.
- ② 기본기도(아침, 저녁기도 · 식사전, 후기도)
 심화기도(묵주기도....)
 : 묵주기도의 각 신비는 묵상의 기초이며 묵상기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신비 : 루가 1,2장)
- ③ 화살기도 : 화살을 쏘듯이 짧게 간단히 한 마디로 하는 기도
 자유기도 :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라. 기도가 어려운 이유?

- ① 하느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미사+말씀+기도가 필요). 하느님의 존재는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깨어진 독”의 존재이다.
- ② 이 세상의 죄 때문이다.(내 힘으로는 어쩔 수없이 일어나는 상황들. 선택하지 않은 원죄)
- ③ 유혹. 욕심들... (더 잘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마. 기도를 잘 하려면...

- ① 기도시간을 낸다.
- ② 기도훈련을 쌓는다(말씀묵상).

- ③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하느님의 뜻을 여쭙어본다.
- ④ 기본기도(아침, 저녁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 ⑤ 氣수련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가장 위험).

바. 성체조배하는 방법

- ① 먼저 성체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한다.
- ② 분심은 하나씩 보내어 마음을 비우도록 하며,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 ③ 그 날의 복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되 3-4회 반복하여 읽고 마음에 새긴다.

사.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 ① 내가 아닌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산다(인간적인 허전함이 없다).
- ② 늘 감사하며 이웃을 위해 겸손하게 봉사한다(자칭 파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 성경 읽는 방법

- ① 복음서(마르코, 루가, 마태오, 요한)
- ② 서간문 (신약)
- ③ 창세기~ (구약)
- ④ 묵시록의 순서로 3번 이상을 읽어야 눈이 열린다.

❖ 알아 둬시다 ❖

- 하느님의 본적 : 時工을 초월하여 어디에서나 존재
- 하느님의 현주소 : 성체, 말씀선포, 하느님의 이름으로 집전하는 성사...
(주님께 향하는 순간)
- 하느님의 존재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4,16)

❖ 기도의 십계명 ❖

- ①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자
‘바쁘다’ 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관심과 의지의 부족이다. 단 5분, 힘들면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 ②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아라

특별히 시간을 내어 성당에 찾거나 기도하는 방 같은 것을 꾸며놓고 기도를 드리면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기가 더욱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느님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기도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 ③ 그 순간에는 다른 생각을 버리고 오직 기도에만 몰두하라
 잡념이 생기면 분심(分心)이 들 때는 기도하기가 힘들다. 기도시간은 어지러운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기도 하다.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던 머리를 비우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기도에 몰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 ④ 분심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많은 신자가 마음을 집중하지 못해, 분심 때문에 기도가 잘 안된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집중이 잘 안된다고 포기하면 안된다. 중간에 그만 두면 영원히 기도할 수 없게 된다. 분심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 ⑤ 하느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 기도를 못한다는 신자도 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문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이야기하듯이 기도해 보자. ‘주님, 힘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등의 짧은 화살기도를 바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 ⑥ 성서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의 시간을 갖자
 기도가 잘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성서를 펼쳐 한 구절을 읽은 후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⑦ 기도문을 외울 때는 의미를 묵상하라
 성모송을 한 번 바칠 때에라도 그냥 외우기보다는 그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면서 바치도록 하자. 기도문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과 같다.
- ⑧ ‘주님의 기도’ 를 바쳐라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다. 가장 쉬운 기도이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다. 구절구절마다 그 뜻을 묵상하면서 깊은 뜻을 이해하면 가장 훌륭한 기도다.
- ⑨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끝맺어라
 교우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나 또는 신앙을 갖지 않

은 사람들 앞에서라도, 항상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마친 후에도 기도로 끝맺는 습관을 들여보자.

⑩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자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처음 1분으로 시작한 기도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기도에 맞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기도시간이 1시간으로도 부족하게 될 것이다.

자. 기도! 이렇게 하기(성경 말씀)

성경에는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다음에 나오는 성서 구절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실 것이다.(마태 6, 6)

❖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어떤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라 댔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 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구니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두실 것 같으냐?(루가 18, 1-7).

❖ 내 말을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던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에페 6, 18).

❖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마르 11, 24).

차. 기도하는 때

- ① 교회법에 따라 정해진 때
- ②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때
- ③ 아침, 저녁기도, 삼종기도, 식사 전후의 감사기도 등과 내 몸이 지치고 어
렵고 힘들거나 방황할 때
- ④ 하나님께 대화와 용서를 청하고 싶을 때 등

4. 천주교인의 일생

우리네 과거의 전통적인 관습의 관, 혼, 상, 제, 와의 비교

가. 관 : 자녀가 태어나면 성당에 데려와 유아 영세를 시켜야 하고, 10세 즈음 되
면 첫 영성체 교육을 시켜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자녀의 종교 교육

나. 혼 : 7성사 중의 혼배 성사에 의한 성사혼과 관면혼 및 자연혼
(이혼 및 조당)

다. 상 : 연도와 장례 미사 (병자성사) 〈선종 기도실〉

라. 제 : 전통 제사와 천주교회의 제사
(성당 및 집에서의 연도 드림, 영정 사진과 지방쓰기)

5. “나” 와 성당과의 연결 관계

가. 성당 : 천주교 신자들이 함께 모여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를 드리는 성체가
모셔진 집.

나. 교적 : 천주교 신자임을 등록한 신자들의 주민등록 등본.

다. 본당 : 자신의 교적이 보관 관리되고 있는 곳의 성당.

6. 타 종교와의 관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가톨릭교회의 입장.

(제사와 타 종교의 믿음 인정함)

〈그리스도교에 대한 선언 제 2항〉

가톨릭교회는 타 종교에서 발견된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
는다. 그들의 생활과 행동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규율과 교리도 거짓 없
는 존경심으로 살펴본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과 서로 다르다
고 해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를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과 더불어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 대화
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그리스도적 신앙과 생활을 증거하는 한편,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긍정하고 발전시키기를
모든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의 제사를 인정하게 되었고, 현재 불교계와 교류하여 초
파일이나 성탄 때 서로 경축 해 주고 있다.

† 마침기도 [이사야서 41장의 말씀]

9절 :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데려오고 그 가장자리에서 불러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내치지 않았다.”

10절 :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 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11절 : 보라, 너에게 격분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너와 다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멸망하리라.

12절 : 너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으려 해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너와 전쟁을 벌이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없어진 자들처럼 되리라.

13절 :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제6강 본당 현황 및 신자의 의무

1. 본당 개관

설 립 : 1982. 2. 6 (대지 780평) / 설립당시 신자수 : 2,110명
 주보성인 : 삼위일체
 첫 미 사 : 1982. 2.21
 주 소 : 설립당시 : 부산 남구 망미1동 산 96-1
 현 재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79-80 (☎ 755-4501)
 관할구역 : 설립당시 : 망미1,2동 / 수영동 / 연산3,6동,8동 일부,9동 /
 광안3동 일부
 현 재 : 망미1동, 연산3동 일부, 연산6동 일부
 주임신부 : 000 (☎ 755-4502)
 보좌신부 : 000 (☎ 755-4503)
 수 녀 원 : 000 (☎ 755-4546)
 평협회장 : 000

2. 본당 역사

1) 지역 신앙의 뿌리 장대골 순교

1866년 병인년 박해의 여파로 1868년 무진년 8명[신앙의 진실함을 끝까지 증거한 이정식(당시 80세, 요한), 그의 장남 이관복(프란시스코), 요한의 아내 박소사(마리아), 요한의 동생 이삼근(베드로), 요한의 대자 양재현(동래 좌수, 말띠노), 옥소사(발바라), 차장득(프란시스코), 이월주(야고보)]의 순교자를 낸 장대골 처형장이 이웃 광안본당 근처에 있다.

장대골 순교가 있는지 30여년이 지난 이 지역에, 1896년 밤대(현 연산동)에 살던 한말구(마르코)가 수영으로 이사를 오고, 전교하여 4가족을 입교시켜 교우수가 20명에 이르게 되었고, 1901년 부산진 성당의 르장드르(Regendre)신부를 모셔 한말구의 집에 공소를 차리고 미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그해가 수영공소의 원년이 되는 것이다.

2) 수영 공소

어려운 사정에 겨우 5-6명이 남아 명맥을 이어가던 중 1911년 동래 철마면 곰내공소(웅천공소)에 살던 김태일 베드로 가족이 이사 오고, 곰내의 기루수 가족, 양산의 박봉달 요셉 가족이 이주해옴으로 교우 수가 30여명이 되었고, 부산진

성당(현 범일성당)에 있던 페셀(Peschell) 신부가 와서 판공성사를 주게 되어 공소는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교구 30년사 기록에는 1926년 신자 수는 17명, 32년에는 38명, 해방 전 해는 19명으로 되어 있다. 1953년 김베드로의 장남 김정룡(시메온, 2대 공소회장)이 수영성당 신축 기성회장을 맡아 수영성당 건립에 힘을 쏟았다.

3) 구 수영 성당

6.25의 혼란 속에 수영에 주둔하고 있던 윌리엄 군중신부가 부지와 물자를 기증하고, 초대 공소회장인 김베드로가 부지를 기증하여 수영공소 건립에 착수, 1955년 수영공소의 준공식을 갖고 1956년 184명의 신자수로 수영성당으로 승격되었다. 수영지역이 광안동 일대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곳에 성당을 지어 이름도 광안성당으로 바꾸었다.

4) 광안성당

수영본당이 신자 수 500명을 넘어 주일 낮미사에는 성당이 좁고, 또한 신자의 2/3가 광안동에 살고 있었으며, 본당 신부가 운영하는 고아원, 정신병원 등이 광안동에 위치하여 본당 신부가 늘 광안동에 상주하고 있는 사정에 따라 1964년 교구청에서 새 성당 신축을 위한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그해 수영성당이 폐지되면서 광안성당으로 명칭이 바뀌고 신축공사에 착수, 1965년 수영성당에서 신축된 광안성당으로 완전히 이사를 하였다. 한편, 수영성당은 공소시절 부터의 오랜 기간을 마감하고 망미성당의 한 구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5) 도마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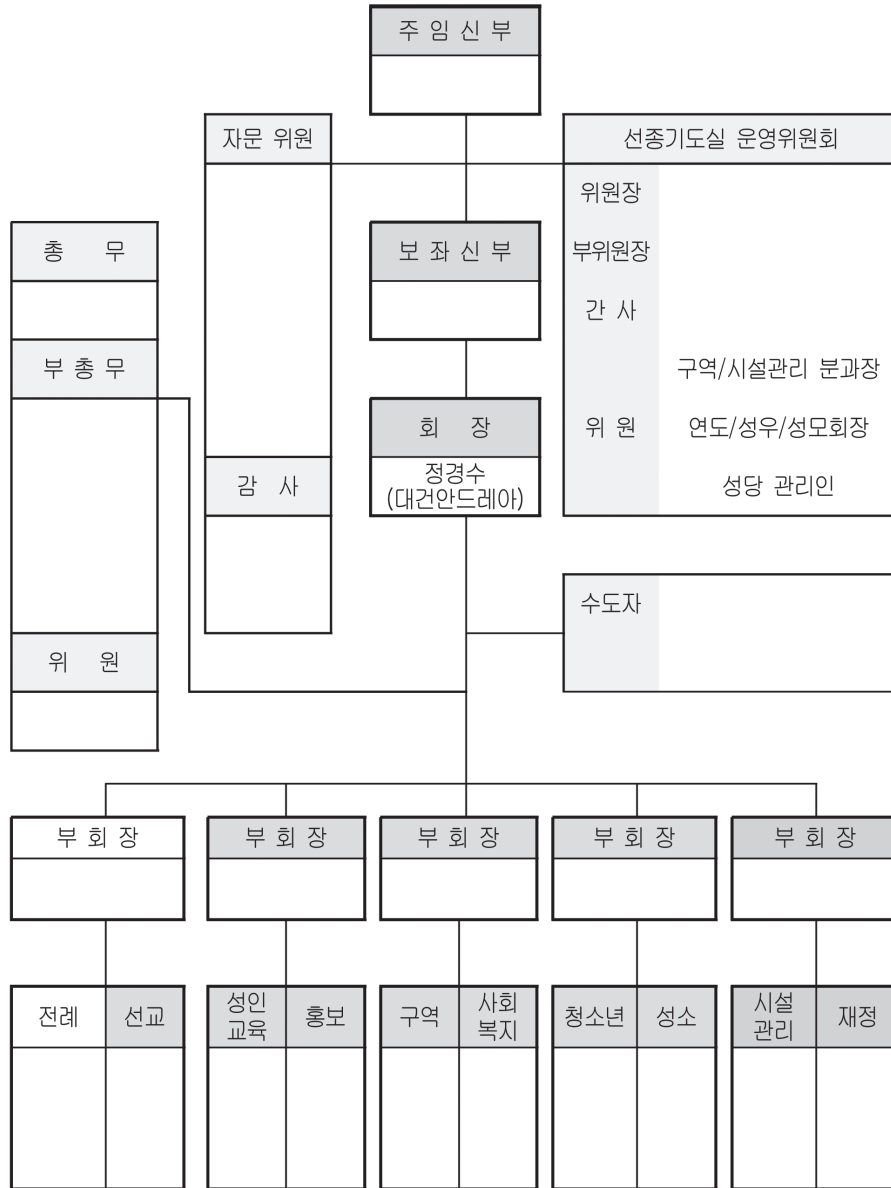
1971년 부산지역 가톨릭 군중후원회가 결성되고, 1974년 군사목관을 전담하는 초교구 군인성당으로 망미본당의 전신인 도마성당이 설립되었다. 당시 망미동, 수영동은 교적이 광안성당에 있었으나, 일부신자들이 가까운 도마성당에서 주일미사를 보게 되고, 또한 군인 신자만으로 제정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으로 준본당인 성도마성당으로 승격되었고, 광안동 일부, 수영동, 망미동을 민관인 관할로 하여 본당 형태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6) 망미성당 출발

도마성당이 승격된 지 1년여 만에 박범숙(망미성당 사목회 초대 고문, 로사)씨가 성당을 신축한다는 조건으로 1981년 보육원 부지를 교구에 헌납하여 이를 토대로 사제관과 교리실을 신축하여 망미본당이 출범하게 되었다

3. 본당 조직

▣ 망미성당 사목협의회 조직표 ▣



▣ 본당 단체 ▣

- | | | | |
|------------|----------|---------|---------|
| ♣ 주일학교교사회 | ♣ 누룩회 | ♣ 꾸리아 | ♣ 성모회 |
| ♣ 성모신심기도회 | ♣ 예수성심회 | ♣ 울뜨레아 | ♣ 제대회 |
| ♣ 삼위일체축구회 | ♣ M.E | ♣ 복사자모회 | ♣ 연도회 |
| ♣ 네오까떼꾸메나도 | ♣ 피아트축구회 | ♣ 성우회 | ♣ 성소후원회 |
| ♣ 반석회 | ♣ 포도나무회 | ♣ 성체조배회 | ♣ 여성연합회 |
| ♣ 삼위일체성가대 | ♣ 자모회 | ♣ 청년회 | ♣ 성령기도회 |
| ♣ 성인복사단 | | | |

4. 신자 현황

㉠ 본당 통계 현황 ㉠

가. 신자수

총 계			수계신자			냉담자			거주미상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155	2,014	3,141	2,494	979	1,515	1,640	599	1,041	1,021	436	585

금년도 세례자				전년도 세례자	세례증감		대세자		
구분	계	남	여		증감수	증감률	계	남	여
어른	103	44	59	115	-12	-10.44%	5	3	2
어린이	19	9	10	7	12	171%			
총계	122	53	69	122	0	0			

총수증감			증 가					감 소				
금년도 총수	전년도 총수	증감수	증가 함계	세례자	전입			감소 함계	사 망		전 출	
					교구내	타교구	기타		사망	사망 추정	교구내	타교구
5,155	5,103	52	282	122	129	23	8	230	32	.	166	32

나. 성사생활 현황

구 분		금년도	전년도	증감수	수계신자대 비율(%)	
성사 일반	관공	성탄	1,019	1,067	-48	40.9%
		부활	1,187	989	198	47.6%
	견 진		0	142	-142	0
	혼인	성사혼	9(쌍)	7(쌍)	2(쌍)	0.7%
		관면혼	11(쌍)	12(쌍)	-1(쌍)	0.9%
	병 자		14	19	15	0.6%
미사참례 (평균)	주일미사	1,041	1,000	41	41.7%	
	평일미사	134	121	13	5.4%	

다. 나이별 신자현황 (2006.2)

1) 본당전체

총 계			주일학교/청소년			청·장년층			노년층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3,123	1,278	1,845	357	186	171	2,092	859	1,233	674	233	441

2)주일학교/청소년층

총 계			0세이상 6세이하			7세이상 12세이하			13세이상 18세이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357	186	171	63	30	33	84	45	39	210	111	99

3) 청·장년층

총 계			19세이상 29세이하			30세이상 39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이상 59세이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92	859	1,233	598	264	334	477	216	261	476	173	303	541	206	335

4) 중·노년층

총 계			60세이상 69세이하			70세이상 79세이하			80세이상 100세이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74	233	441	293	131	162	261	76	185	120	26	94

라. 교무금 책정현황 (2005년도)

지역	총 세대수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납부 세대	책정 금액	미책정 비율(%)	납부 금액	납부율 (%)
01지역	981	662/0	319	661/0				
02지역	183	132/0	51	132/0				
03지역	1130	2/0	1128	2/0				
합계	2294	796/0	1498	795/0				

[지역구분 : 01지역 - 망미1동, 광안3동 / 02지역 - 연산3동, 6동 / 03지역 - 냉담 및 행복세대]

- * 총 세대수 : 신자가 있는 세대.
- * 책정 세대 : 신자가 있는 세대 중 책정한 세대/신자가 없는 세대 중에 책정한 세대.
- * 미책정 세대 : 총세대수-신자가 있는 세대 중 책정한 세대.
- * 납부 세대 : 신자가 있는 세대 중 납부한 세대/신자가 없는 세대 중에 납부한 세대.
- * 책정 금액 : 신자가 있는 세대 중 책정한 금액/신자가 없는 세대 중에 책정한 금액.
- * 책정 비율 : 책정세대(신자가 있는 세대)/총세대수.
- * 미책정 비율 : 미책정세대 / 총세대수.
- * 납부 금액 : 신자가 있는 세대 중 납부한 금액/신자가 없는 세대 중에 납부한 금액.
- * 납 부 율 : 납부세대 / 총세대수.

마. 주일헌금 봉헌현황 (2005년도)

(1,000 단위 이하 절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 ₩ 000,000,000 ÷ 52주 = ₩ 0,000,000 ÷ 1,041명 = ₩ 0,000]

5.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한국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 『교회법전』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 한다

제 209 조

제1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신자들은 보편 교회에 대하여서나 법규정에 따라 소속되는 개별 교회에 대하여서나 해야 할 본분을 성심 성의껏 수행하여야한다

제 210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즐거운 성화를 증진하기에 온 힘을 쏟아야한다

제 211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시대의 전 인류에게 더더욱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 212 조

제1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니 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한다

제2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제3항.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한다

제 21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14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께 경배를 봉행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

제 215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

제 216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느니 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기획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제 217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써 복음적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도록 소명되느니 만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고 또한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살도록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18 조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은 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보존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탐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신중하게 발표할 정당한 자유를 가진다.

제 21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 선택에서 어떠한 강제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 220 조

아무도 타인이 누리는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의 사생활을 수호할 각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221 조

제1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권리를 법규범에 따른 교회 관할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제2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관할권자에 의하여 재판에 소환되는 경우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있다.

제3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률의 규범대호가 아닌 한 교회법적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제 222 조

제1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제2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줄 의무도 있다.

제 223 조

제1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 교회의 공동선뿐 아니라 타인들의 권리 및 타인들에 대한 의무도 참작하여야 한다.

제2항. 교회 권위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권리의 행사를 공동선에 비추어 조정할 소임이 있다.

6. 교회법과 교무행정에 따른 신자생활

1) 주요내용

교회는 법을 제정하여 공동의 이익과 질서의 유지를 꾀하는 한편, 교무 행정을 통하여 원활한 신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다음 내용을 알려둔다.

2) 교회법

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며 존속 발전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 교회법의 제정 및 변경의 근거는 신법(자연법)과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신구약성서와 성전이며, 그 권한은 교회입법기관에 있다. 현행 교회법은 전문 1,752개조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983년 1월 25일에 선포되고 1983년 11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여기에서는 교회법전 중에서 신자들의 여섯 가지 의무에 대해서 정리 해 본다.

3)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

①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한다.

십계명의 제3계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신자들은 주일과 그에 준하는 대축일, 즉 주님성탄,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주님부활, 성모승천 대축일에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미사에 참여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주일은 기쁜 날, 곧 예수의 부활 소축제일이므로 찬미와 감사와 봉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따라서 주일미사 참여와 의무는 짐이라기보다는 기쁜 명령인 것이다.

②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한다.

신자들은 금육과 단식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억제하고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절약된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금육은 육식을 금하는 것으로 재의 수요일과 주님수난 성금요일 그리고 대축일과 겹치지 않는 한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다. 단식은 한 끼만 충분히 먹고 한 끼는 요기 정도만 하며 한

끼는 완전히 금식하는 것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 만18세부터 60세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다. 단식의 의무는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나 중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이며, 금육의 의무도 여행 중이거나 외출 중에 매식해야 할 때는 면제된다. 그러나 금육과 단식은 의무라는 측면보다는 사랑과 희생의 성격이 강하다.

③ 적어도 일년에 한번 고백성사를 한다.

이 의무는 일년에 고백성사를 한번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일원인 신자들이 살아있는 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자들은 회개와 보속의 시기인 사순절 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세례 때의 결심과 약속을 되새기며 자신을 쇄신하기 위해 고백성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적어도 일년에 한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이 의무 역시 일년에 한번만 영성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가능한 한 자주 영성체하도록 권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후하여 부활하신 예수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영성체를 영할 것을 요구한다.

⑤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신자들은 현재 교무금과 헌금으로 이 의무를 채우고 있으나, 그 참된 의미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레위기 27.30-34, 신명기 14.22-29 참조). 교무금과 헌금은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생 양성비, 사제·수도자·전교사·교리교사·사무장들의 생활비, 교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비용, 포교사업 및 구제사업을 위한 기금 등으로 쓰인다.

⑥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킨다.

신자의 혼인은 성사이므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유효하고 은혜로운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 신자들은 신자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신자와도 혼인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교회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관면혼인).

4) 교무행정(교적 관리)

세례 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교적이 있다. 교적은 신자의 주민등록표와 같은

것으로서, 신자 개개인의 세례, 견진, 혼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더 효과적인 사목상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자가 영세한 본당은 그 신자의 본적지 구실을 한다. 그 본당에서는 신자의 세례 사실을 세례대장에 기록하고, 이 세례대장을 100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혼인이나 취직 혹은 진학을 위해 세례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자기가 세례 받은 본당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5) 미사지향과 미사예물

사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 백성의 여러 가지 요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성부께 미사를 봉헌한다. 하느님만이 이 완전한 숭배와 찬미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느님에게만 봉헌된다. 미사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만인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총을 나누어주기 위하여 지내는 것이다.

신자들이 자기들의 특별한 지향, 죽은 이의 영원한 안식, 어떤 영신적인 또는 현세적 필요, 하느님에게 감사의 표시 등을 위하여 미사를 드려달라고 청한다. 이런 청을 할 때에 보통으로 금전적 기부를 한다. 이 미사예물은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미사성제에 좀 더 깊이 참여하고자 한다는 원의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미사예물의 봉헌자는 미사성제에 자신의 제물을 첨부하면서 교회와 사제들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돕는다. 결국 미사예물을 빌미로 하느님께 무엇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신앙자세라 할 것이다.

6) 교무금과 주일미사 헌금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번 돈의 일부(원래는 십분의 일을 바쳤다)를 교회에 바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활동을 경제적으로 돕고 사제의 생활을 위해 돈을 희사하게 된다. 교무금(敎務金)은 각 신자가 교회(일반적으로 본당신부)와 협의하여 매달 얼마씩 내겠다고 약속한 금액이며, 이외에도 매번 미사에 참석할 때마다 감사헌금이나 교회의 특별 활동에(예 : 성전 신축기금)을 위한 헌금을 한다.

이 모든 헌금 행위는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며 따라서 모든 재물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동체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